

죽음의 미화, 송고의 미학

-김응하 서사를 중심으로-

김유진*

1. 서론
2. 증언과 기억의 서사
3. 죽음을 기억하는 방식 - 송고화
4. 김응하 서사의 변화 양상
5. 결론

<국문초록>

심하전투(1619)는 17세기 동아시아 각국의 세력 판도를 변화시킨 일대 사건이었다. 조선은 이 전투에 1만 5천여 명을 파병하였으나 9천여 명이 전사하는 처참한 패배를 경험하였다. 처참한 패배로 기록된 심하전투에서의 영웅은 단연 끝까지 항전한 김응하였다.

박희현은 <김장군전>을 지어 그의 죽음을 기렸다. <김장군전>은 走回人과 도망자의 기억과 증언으로 이루어진 텍스트이다. 박희현은 김응하에 대한 기억과 증언을 통해 그가 수양한 인물이자 항전한 인물로 형상화하였고 그 결과 그를 송고화하는 데 성공했다. 이러한 <김장군전>에서 주목할 지점은 중화주의의 이념이 미학적으로 형상화된다는 점이다. 김응하의 죽음은 그 자체로 비장한 사건이었지만, 미적 전이 과정을 거쳐 송고미를 띠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김응하의 죽음은 송고한 것이 되고, 중화주의의 이념과 결합된다.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조교

중화의 이념을 미적으로 승화시킨 <김장군전>이 당대에 끼친 영향은 역사적 맥락에 대한 고려를 통해 논의되어야 한다. 김응하의 항전이 명나라의 추가 파병에 대한 거절의 근거가 될 수 있었다는 지적은 일견 타당할 수 있으나, <김장군전>도 이러한 관점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중화를 침범한 후금에 대한 비난보다, 항장에 대한 강한 비난이 감지되는 <김장군전>의 표적은 현실론을 펼친 광해군으로 보아야 합당하다. 광해군 대에 간행된 『충렬록』은 현실론을 주장하는 王權에 대한 臣權 차원에서의 견제로 작용했던 것이다.

<김장군전>은 후대의 문인들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끼친 텍스트이다. <김장군전>이 실린 『충렬록』은 총 4회 간행되었으며, 당색과 계층을 초월하여 다수의 문인들이 김응하에 대한 서사를 남긴 바 있다. 현실론을 펼치 고자 했던 광해군과 달리, 정조는 『중간충렬록』을 왕명으로 간행하여 중화주의의 이념적 숭고성을 이룩했다. 김응하 서사의 다양한 양상은 ‘정치적 주관의 추구’, ‘사실 추구’, ‘이념적 포섭과 강화’의 3단계로 살필 수 있다. 김응하를 대표로 한 大明義理의 숭고한 이념은 부침을 겪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강화된 것으로 보이거나 이면의 균열적 면모도 찾을 수 있다.

핵심어 : 심하전투, 김응하, 비장, 숭고, 김장군전, 인물전

1. 서론

17세기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는 後金の 건국을 기점으로 큰 변화를 겪게 된다. 누르하치[努爾哈齊]는 1583년 이래 수차례의 정복전쟁을 통해 여진의 제부족을 통일하고, 1616년 후금을 건국했다. 1618년 누르하치는 七大恨¹⁾을 내걸고 명과 본격적인 전쟁에 돌입한다. 1619년 후금이 遼東의 전략적 요충지인 撫順과 淸河를 점령하자, 명은 강대해진 후금 세력에 대한 견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후금에 대한 원정을 계획한 명은, ‘再造之恩’을

1) 누르하치가 1618년 4월 13일에 반포한 조칙이자 명나라에 대한 선전포고문.

근거로 조선에 講兵한다. 우리가 ‘深河戰鬪’라고 부르는 ‘사르후[薩爾詢] 전투’는, 강성해진 후금을 견제하기 위한 명의 원정에 조선이 참여함으로써 동아시아 국제전의 양상을 띠게 되었던 것이다. 명과 후금 사이에서 균형을 찾고자 했던 광해군은 명의 청병에 소극적으로 대응했지만, 조선의 신하들과 명의 압력에 못 이겨 1만 3천명을 파병하게 된다.²⁾ 당시 ‘사르후 전투’에 참여한 明軍은 네 방면으로 진군했다. 산해관 총병관 杜松이 이끄는 西路軍 2만여 명은 무순 쪽으로 향했고, 요동 총병관 李如柏이 이끄는 南路軍 2만여 명은 청하 쪽으로 향했으며, 총병관 馬林이 이끄는 北路軍 2만여 명은 開原 쪽으로 향했고, 총병관 劉綎이 이끄는 東路軍 9천여 명은 寬奠 쪽으로 향했다. 도원수 姜弘立, 부원수 金景瑞가 이끄는 조선군은 유정이 이끄는 동로군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명과 조선의 10만 연합군은 1619년 富車에서 후금군에게 패배하였다.

심하전투(1619)의 패배 후, 조선에서는 1621년에 金應河³⁾의 事績을 담은 『忠烈錄』이 간행된다.⁴⁾ 그러나 『충렬록』에는 심하전투 자체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평가가 결여되어 있다. 심하전투가 17세기 동아시아 각국의 세력 판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건임에도, 김응하에 대한 인물전과 추모시만 나열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충렬록』에서, 조선의 냉철한 정세 분석을 확인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심하전투에 참여한 무수한 인물 가운데, 김응하만을 그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 역시 『충렬록』이라는 거창한 제목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따라서 『충렬록』이라는 텍스트는 단순히 충렬을 기리

2) 한명기, 「16, 17세기 明清交替와 한반도」, 『明清史研究』 22, 명청사학회, 2004 참고.

3) 金應河(1580~1619): 字 景義. 1605년(선조 38) 무과에 급제하였다. 선천군수로 좌영장을 맡아 심하전투에 참가하였지만 분전하다 사망하였다. (『重刊忠烈錄』 <世譜> 참고).

4) 규장각 소장본. 초간본으로 보이는 『충렬록』은 현재 2개의 이본이 소장되어 있는데, 청구기호: 奎 12020의 경우, 도상(圖像)이 있으며 명군 장수인 유정과 교일기의 제문, 전망장사(戰亡將士)에 대한 제문이 없다. 청구기호: 古貴 923.55 G417의 경우, 도상이 없는 대신 유정과 교일기, 전망장사(戰亡將士)에 대한 제문이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전자를 <김장군전>이라고 칭했는데, 표지가 없어 임의로 붙인 명칭이다. 판심체가 『충렬록』이라 되어 있으므로 『충렬록』으로 명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규장각 소장 『충렬록』 가운데 청구기호: 奎 12020의 경우 『충렬록』①로 칭하고, 청구기호: 古貴 923.55 G417의 경우 『충렬록』②로 칭하고자 한다. 정조 대에 간행되었던 2책 8권의 『重刊忠烈錄』(청구기호: 奎 1320, 奎 1695)은 초간 『충렬록』에 많은 사료들이 추가되어 편제 자체가 달라졌다. 『중간충렬록』은 간단히 『충렬록』③으로 칭하고자 한다.

기 위한 것으로 볼 수만은 없다. 조선이 처한 복잡한 대내외적 상황과의 연관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충렬록』의 핵심은 김응하라는 인물이다. 김응하의 일대기는 朴希賢⁵⁾이 쓴 <金將軍傳>에 정리되어 있으며, 이 작품은 후대에 창작된 김응하와 관련한 서사에 있어서 하나의 전범이 되었다. <김장군전>에 대한 개별 연구로는 2개의 논문이 있으며,⁶⁾ 이를 통해 작품의 전모와 ‘김응하 서사’⁷⁾의 역사적 변천을 일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선행연구에서 <김장군전>의 문예미가 충분히 분석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⁸⁾ 인물에 대한 포괄을 목적으로 하는 인물전의 특성상, 김응하와 같은 인물에 대해서 숭양의 태도를 취하는 것이 특별한 일만은 아니다. 하지만 인물의 숭양을 통해 형성되는 崇高의 미학이 어떠한 서사적 방식을 통해 구축되는가, 송고의 미적 경험 혹은 미적 효과가 무엇인가 등의 문제는 논할 가치가 있다. 신화나 종교에 어울릴 법한 ‘송고’라는 ‘미적 범주’가 조선 후기에도 지속된다는 사실은 송고의 미학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설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송고의 미학이 理念과 결합되면서 김응하 서사가 조선 시대 내내 회자된 것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김장군전>과 『충렬록』이 위치한 정치사회적 맥락이 보다 분명해질 수 있을 것이며, <김장군전>

5) 朴希賢(1566~?): 字 子醇, 號 迂菴. 1610년(광해군 2)에 알성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으며, 『續故事撮要』를 편찬하는 데 참여하였다.

6) 이승수, 「深河 戰役과 金將軍傳」, 『한국문학연구』 26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3; 임완혁, 「明·淸 交替期 朝鮮의 對應과 『忠烈錄』의 의미」, 『漢文學報』 제12집, 우리한문학회, 2005.

7) 본고에서는 김응하의 행적을 소재로 창작된 서사물들을 ‘김응하 서사’로 지칭하고자 한다. 『충렬록』의 간행을 통해 김응하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은 일단 정리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김응하를 기억하려는 다수의 문인들에 의해 김응하의 이야기가 재생되고 있으며, 각 편의 의미 차이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8) 이승수(2003)는 지배층인 광해군과 그의 신하들이 김응하만을 선택함으로써 다수의 참전자들이 배제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후대의 사대부들은 중화 수호의 이념을 강조하며 김응하 서사를 재창작한 한편, 김응하 서사가 야담에 수용되면서 이념은 그대로인 채 민간적 상상력이 덧붙여졌다고 하였다. 그러나 『충렬록』²⁾에는 <戰亡將士賜祭祭文>이 있고, 김응하 서사에는 김응하와 함께 죽은 인물들이 추가되는 경향이 보인다는 점에서 김응하만 선택되었다는 주장은 일반화하기 힘든 점이 있다. 임완혁(2005) 역시 지배층인 광해군과 신하들이 명의 의식을 풀고 이념을 공교화하기 위해 『충렬록』을 편찬하였고 후대로 갈수록 대명리론이 약화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심하전투 직후 광해군과 신하들의 명에 대한 태도가 달랐던 것으로 보이며, 후대의 김응하 서사에서 대명리론이 약화된 증거를 명확히 찾기는 힘들다.

이후 창작된 김응하 서사의 문예미를 그것의 역사적 변천과 함께 조망할 수 있을 것이다.

2. 증언과 기억의 서사

<김장군전>은 심하전투에서 奮戰하다 사망한 김응하의 사적을 다루고 있다. <김장군전>은 전형적인 人物傳의 구성을 보이고 있는데, 김응하의 평소 행실과 급박한 전쟁의 상황, 마지막으로 입전자 평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⁹⁾ 비록 <김장군전>이 전형적인 인물전의 형식을 보여 주기는 하지만, 서사의 핵심 골격은 참전자의 증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물전이라는 형식이 본래 직접 경험한 일을 서술하기보다는 인물과 관련한 기사를 중심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증언의 기록’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특성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김장군전>의 경우, 인물에 대한 公論이 형성되기도 전에 입전 작업을 서두른 나머지 참전자들의 증언이 직접 노출되는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김장군전>은 생존자들의 ‘증언의 서사’일뿐만 아니라 그것의 전달 기능도 하고 있다.

하지만 <김장군전>에도 내적 모순이 있다. 전쟁 상황에 대해서만큼은 전적으로 생존자들의 기억과 증언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패배한 전쟁에서 생존자들은 대개 패잔병으로 포로이거나 도망자들인데, 이들은 동시에 증언자이기도 하다. 褒獎하려는 인물의 행적을, 貶論해야 할 사람들의 입을 빌어 전달해야 한다는 점에서 내적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입전자는 자신의 기억뿐만 아니라 전장에서의 김응하와 관련된 증언들을 선별하고 그 가운데 입전 의도에 부합하는 것을 선택하여 인물전을 완성했을 것이다. 이렇게 최초 작성된 김응하에 대한 증언과 기억의 서사는 후대 문인들에 의해 재생산되며, 증언자들의 기억은 마침내 사실로 전이된다. 전쟁 상황의 증언은 어디까지나 생존자들의 기억에 의존하기에, <김장군전>은 기본적으로 생존자들의 ‘기억의 서사’일 수밖에 없다. 이들의 증언

9) 이승수, 앞의 논문, 33~34쪽 참고.

을 모아 인물전을 작성하는 입전자는, 타인의 증언과 기억을 선택하고 專有하여 자신의 필력을 통해 증언함으로써 내적 모순을 해결한다. 입전자는 두 가지 차원에서 김응하의 면모를 부각시키고 있다. 하나는 수양한 사대부로서, 다른 하나는 불굴의 장수로서 그려내는 것이 그것이다. 입전자는 김응하가 수양한 사대부적 면모를 갖고 있었기에 불굴의 항전을 보여준 장수가 될 수 있었다는 논리를 펼치며 이념적 인물로 창조하고 있다.

1) 수양한 인물

박희현은 김응하의 ‘修養한 인물’로서의 면모에 주목하고 있다. 그가 그려낸 김응하는 효성과 우애가 높고 宦路에서의 진퇴를 분명히 하며, 스스로를 규율하는 사람이다. 또한 주어진 分限을 엄격히 지키고, 의리를 지키며 성실한 인물이다. 일화적 사건을 시간 순서에 따라 나열하는 박희현의 서술 방식은 전형적인 인물전의 형식이다.

김응하는 강원도 철원 출신으로 임진왜란 발발 이듬해(癸巳, 1593년)에 전란으로 부모를 잃었다. 어린 나이임에도 부모의 장례를 치렀고 어린 동생 應海와 수렵과 농사로 삶을 영위하였으며 고을에서 효성과 우애로 칭송되었다고 한다. 김응하는 전쟁고아인 데다가, 본전에 가게에 대한 자세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면, 그의 집안 역시 한미한 편이었을 것이다. 김응하는 사냥을 생업으로 하다 보니 자연스레 활쏘기 실력도 좋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1602년(선조 35) 철원에 부임한 관찰사 朴承宗(1562~1623)의 눈에 띄어 무예를 익히기 시작한다. 김응하는 1605년(선조 38) 무과에 급제한다. 박승종은 이후에도 김응하를 아꼈고, 이후 김응하의 환로는 박승종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박승종과 김응하의 인연은 김응하가 죽은 후, 박승종이 李爾瞻과 함께 훈련도감에서 『충렬록』을 간행할 때까지 지속된다. 박승종에게 발탁된 김응하의 인사 과정은 다소 파격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따른 잡음이 없을 수가 없었다. 입전자가 주목하고자 한 것은 이에 대응하는 김응하의 태도였다. 조정의 명령이 늦게 오거나,¹⁰⁾ 獵等한 그

10) 未霑一命 恂恂無意於仕進(<김장군전>).

의 직위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면¹¹⁾ 김응하는 관직에 연연함 없이 물러났다. 또한 國喪 때 술과 색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금령이 내려졌을 때도 엄격히 규칙을 지킨 것은 김응하뿐이었다.¹²⁾ 이러한 김응하의 행적에 대해 입전자 박희현은 서사의 진행 가운데에 추임새처럼 자신의 생각을 삽입해 놓았다. 마지막 史評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인물에 대한 박희현의 직접적인 평은 서너 차례 보인다.¹³⁾ 박희현은 무장인 김응하를 ‘옛글을 잘 익힌 선비라도 이와 같지는 못하였으리라’¹⁴⁾라고 하여 김응하의 사람됨이 그의 ‘文士적 면모’에서 기인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입전자가 무사 김응하의 인물됨을 서술하면서 문사적 면모에 우선 주목한 것은 나름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희현은 김응하의 문사적 면모에 대해 서술한 뒤 그의 ‘무사적 면모’를 서술하고 있는데, 일화를 통해 재현되는 김응하의 무사적 면모는 전형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 김응하는 귀한 집안의 딸을 첩으로 삼으라는 권유에 분한을 들어 사양하였다.¹⁵⁾ 또한 김응하의 실적을 낮게 평가했던 韓浚謙이 계축옥사(1613, 광해군 5)에 연루되어 放逐鄕里되자, 김응하는 가장 먼저 그를 위로했다. 김응하는 三水郡守¹⁶⁾와 北虞候가 되었는데, 부성을 축조하는 일을 감독하여 부지런히 공사를 마쳤음에도 공을 자랑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면모에 대해 박희현은 “(진퇴에 연연하지 않아) 여유로운 옛 명장의 풍모가 있었다.(綽有古名將風)”라고 평하였다. 여기에서는 박희현이 평한 ‘綽有’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작유’는 『孟子』에서 연유한 표현으로, 진퇴에 연연해하지 않고 직언하여 잘못을 바로잡는 군자의 모습을 가리키는 말이다.¹⁷⁾ 결국 박희현은 자신과 타인의 김응하에 대한 기억을 조합하는 과정에서, 평소 수양한 인물로서 보여 준 사대부적 면모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후금의 공격에 응전하

11) 有不喜者汰將軍職 將軍即日歸家 略無愠意(<김장군전>).

12) 獨將軍律已謹嚴 不踰繩墨(<김장군전>).

13) <김장군전> 전편에서 작자가 서사 도중 개입하여 자신의 견해를 개진하는 경우는, ‘雖學古書生 不如也’; ‘綽有古名將風’; ‘語其才勇則當爲大帥 而做一守令 何足展其志乎’; ‘其素定死綏之志 可傷也已’ 등 네 부분이다.

14) 雖學古書生不如也(<김장군전>).

15) 凡人福分有限 豈可緣妾致貴 辭之(<김장군전>).

16) 咸鏡道 南兵營 三水鎮의 兵馬僉節制使. 병마첨절제사는 兵馬節度使 아래의 종3품 무관직.

17) 『孟子』, <公孫丑 下>, 我無官守 我無言責也 則吾進退 豈不綽綽然有餘裕哉.

다 전사한 강인한 무장을 논함에 있어서, 사대부적 면모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입전자가 문인이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그 이유는 해당 텍스트의 목적과 그것이 겨냥하고 있는 대상을 고려해야 파악할 수 있다.

2) 항전한 인물

강홍립이 이끄는 조선 군대는 1619년(己未, 광해군 11) 2월 11일 도강하여 진군하고, 3월 4일 3만여 명의 군사를 통솔하여 富車嶺에 도착한 명의 대장 유정은 후금군에게 연패했다. 조선군 역시 후금군에게 패배한다. 이후 후금군에게 사로잡혔다가 도망한 자들의 증언이 조선에 전해진다. <김장군전>에 언급된 走回人은 총 7명이나, 박희현에 의해 그 증언이 채택된 자는 3명이다.

鄭應井은 후금군에게 잡혔다가 풀려났는데, 후금의 差使와 함께 조선에 들어왔다. 정응정은 오랑캐에게 들은 김응하의 최후를 간략하게 전하고 있다. 정응정이 오랑캐들에게 들은 김응하의 최후는, 나무에 의지하여 검으로 적들을 무수히 베다가 온몸에 화살이 박힌 채 창에 찔려 죽었지만 손에서 검을 놓지 않았다고 한다.¹⁸⁾ 주희인 역관으로 보이는 崔得宗 역시 죽은 뒤에도 검자루를 놓지 않은 김응하의 모습에 오랑캐들이 두려워하였다고 한다.¹⁹⁾ 입전자 박희현은 정응정과 최득종의 증언은 간단하게 전하고, 吏文學官이었던 李長培의 증언은 비교적 자세하게 전하고 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박희현이 직접 이장배에게 패전의 이유를 물어보았기 때문으로 보인다.²⁰⁾ 박희현은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김응하와 관련된 이야기의 신빙성을 얻고자 했다.

이장배의 증언에 따르면, 명군 총병관 유정의 동로군의 뒤를 조선군의 좌영, 중영, 우영의 순서로 따라 갔다고 한다. 앞서 가던 명군이 후금군을 만나 대패하자 조선군은 후금군과 직접 대치하게 되었다. 左營將의 김응하

18) 左營中有一將 終始力戰 依於一樹 手劍擊殺 不可勝記 身被重鎧 矢集如蟻 猶莫能傷 有一胡以槍刺之 手把大刀而仆 終不舍(<김장군전>).

19) 金將軍死後 尙持劍柄 故胡人猶恐其生 不敢近前(<김장군전>).

20) 李長培亦自虜中還 余問其戰敗曲折(<김장군전>).

는 후금군과 맞서게 되자마자 대열을 흩어 陣을 형성하고는, 中營에 있는 원수 강홍립에게 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강홍립은 右營將 李一元²¹⁾에게 지원을 명하였다. 김응하는 이일원에게 언덕에 올라가야 한다고 하였지만 이일원은 김응하의 말에 따르지 않았다. 우영이 좌영과 합치려는 순간 후금의 驍兵 수천이 좌영과 우영의 사이를 갈라놓았다. 이일원은 먼저 도망쳤고 삼시간에 우영이 궤멸되었다. 후금군의 본진은 5-6만 정도의 병력으로 1리 정도 거리에 진을 치고 있었다. 김응하는 정예 銃兵을 보내 후금군과 교전했고 세 차례 정도 진퇴를 반복했다. 그러나 갑자기 바람이 불어 화약을 날려 버리는 바람에 총탄을 쏠 수 없게 되었고, 후금군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조선군의 진영으로 난입하였다. 김응하는 쇄도하는 후금군의 위세에 굴하지 않고 홀로 맞서 싸웠다.

장군은 홀로 버드나무에 의지하여, 활을 쏠 때마다 적의 갑옷을 관통시켰습니다. 적병들이 모두 활사위 소리와 함께 거꾸러졌는데, 죽은 자 중에는 오랑캐 장수가 많아 오랑캐들이 매우 신묘하게 여겼습니다. 화살이 떨어지자, 긴 칼을 움켜쥐고 싸웠는데 죽인 적병이 매우 많았습니다. 검이 부러져 다시 검을 휘두를 수 없게 되자, 갑자기 적병 한 명이 창으로 뒤에서 장군을 찔렀습니다. 땅에 쓰러졌지만 여전히 칼자루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²²⁾

위 인용된 부분은 이장배의 전언 가운데 김응하의 최후를 증언한 부분이다. 후금의 수천 기병이 쇄도하는 가운데 이일원의 우영은 이미 궤멸되었고, 김응하의 좌영은 혼전을 벌였다. 심하전투에 투입된 조선군의 숫자는 전투원과 비전투원을 모두 합쳐 1만 5천5백여 명이었으며,²³⁾ 이 가운데 전투병은 포수 3천5백 명, 사수 3천5백 명, 살수 3천명 정도였다.²⁴⁾ 이 가운데

21) 李一元(1575~1644): 字는 會伯. 武官으로 1605년 증광시에 무과 급제하였다. 심하전투에서 후금군에게 포로로 잡힌 전력으로 인해 자주 논란이 되기는 하였지만, 인조대에도 황해도 평산현감을 지내는 등 관직에 머물렀다. 그러나 1644년 沈器遠의 역모에 공모했다하여 처형당했다.

22) 將軍獨依柳樹下 射必洞札 賊皆應弦而倒 所殪多虜將 虜甚秘之 矢且盡 持長劍 所擊殺尤多 劍折不得復擊 忽有一賊 以槩從後刺之 仆地 劍柄尚在手(<김장군전>).

23) 『광해군일기』 권136, 광해 11년 1월 庚寅.

충분한 화력을 갖추지 못한 명군이 조선군에게서 가장 필요로 했던 것은 포수였다.²⁵⁾ 후금군의 기병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포수가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천의 후금 기병들에게 진영이 뚫리면서 조선군은 버틸 수가 없었다. 포수를 비롯한 여타 병력들이 궤멸되고 수 백 보 떨어진 高地에 주둔하고 있던 중영의 원조도 없는 상황에서 김응하는 홀로 분전했다. 이러한 김응하를 제압한 후금군의 전술은 사냥 방법과 유사했다. 후금군의 기본 단위는 니루(牛錄)인데, 니루는 300여 명 정도의 기병과 보병으로 구성되며, 다시 각 75명 정도의 타탄이라고 하는 4개의 하부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²⁶⁾ 이러한 후금군의 구성은 그들의 생활수단이었던 수렵을 위한 부족 조직이 군사적으로 재편된 것이었다. 후금군은 김응하가 등지고 있던 버드나무를 중심으로 포위망을 점차 좁혀갔고 김응하는 항전하다 결국 장렬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다.

3) 숭고한 인물

박희현은 <김장군전>의 말미에 김응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전술한바 박희현은 김응하의 殉節이 그의 武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평소의 행실에서 이미 순국의 뜻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임을 강조한다. 그의 힘이 세고 활을 잘 쏘았다는 사실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²⁷⁾ 박희현은 무장을 입전하면서 그의 무예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해당 인물의 결연한 의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박희현은 대비적인 서술을 통해 김응하를 돋보이게 하고 있다. 김응하와 대비되는 인물은 降將인 강홍립과 김경서이다.²⁸⁾ 강홍립과 김경서의 죄는

24) 『광해군일기』 권130, 광해 10년 7월 庚寅.

25) 한명기,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역사비평사, 1999, 262쪽 참고.

26) 마크C. 엘리엇, 이훈·김선민 옮김, 『만주족의 청제국』, 푸른역사, 2009, 111쪽 참고.

27) 居家之行徇國之志 乃其所長 膂力過人 射藝絕倫 特餘事耳(<김장군전>).

28) 부정적 인물로서 강홍립을 입전 대상으로 삼아 소설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으로는 權忭(1599~1667)의 <姜虜傳>(1630년 作)이 있으며, 이 작품에 대한 연구는 박희병, 「17세기 초의 崇禎排胡論과 부정적 소설주인공의 등장」(『한국고전소설과 서사문학』 上, 집문당, 1998)에서 이루어졌다. 김경서에 대한 인물전으로는 李時恒(1672~1736)이 1738년(영조 14)에 평양에서 간행한 『金將軍遺事』에 <關西忠烈傳>(1735년 作)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이에 앞서

단지 항복한 것뿐만 아니다. 박희현은, 강홍립과 김경서가 항복한 죄에다가 후금군에 고립된 김응하를 구원해 주지 않은 죄를 더해 반드시 誅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²⁹⁾ 따라서 적병과 마주치자 도망한 신충업·이일원과 궁지에 몰리자 항복한 강홍립·김경서와 비교하면, 김응하는 2백 년 事大의 의리를 지킨 사람이자 社稷을 보존한 공을 세운 자가 되는 것이다.³⁰⁾

엄청난 수의 적군이 우리 군영을 압도하여 수적 차이가 현격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침착하게 진을 펼치고 앞장서서 싸우길 독려했으니, 얼마나 씩씩한가! 오랑캐 병사가 찾아와 통역을 부른 것은 강화에 그 뜻이 있었던 것임에도 들어도 못 들은 척 끝까지 힘을 다해 싸웠으니, 얼마나 의로운가! 말에서 내려 나무에 의지해 필사의 의지를 보여 수천의 군대가 처참히 싸워 항복하지 않았으니, 얼마나 용맹한가! 손에 쥔 장검을 죽어서도 놓지 않아 다시 일어나 적을 죽일 듯하였으니, 얼마나 열렬한가! 따뜻한 봄날임에도 죽은 육신이 상하지 않아 분노한 모습이 팔팔하여 얼굴이 살아있는 듯하였으니, 얼마나 기이한가! 예부터 전쟁에서 죽은 자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어느 누가 씩씩하고 의롭고, 용맹하고, 열렬하기가 이만큼 탁월한 자가 있었던가!³¹⁾

박희현은 김응하라는 인물에 대한 평을 격렬한 어조로 정리하고 있다. 박희현은 김응하가 적군을 맞서 싸우다 장렬히 전사한다는 일련의 연속된 사건을 분절하여 김응하의 행위를 압축적으로 서술한다. 그리고 각 사건에 ‘一何壯也’, ‘一何義也’, ‘一何勇也’, ‘一何烈也’, ‘一何異也’라는 5개의 평을 연이어 쏟아 내고 있다. 이는 독자에게서 고양된 감정을 도출하고자 단련한 구절이다. 박희현의 句法을 통해 김응하는 ‘壯’, ‘義’, ‘勇’, ‘烈’, ‘異’를 대표하

김경서는 포로로 잡혀있으면서도 충렬을 행하다 죽었다 하여 인조 8년(1630)에 관작이 회복된 바 있다. <관서충렬전>에 대한 연구로는 임유경, 「<金景瑞傳>연구-문제적 인물의 영웅화 과정-」 『동방한문학』 45, 동방한문학회, 2010)이 있다.

29) 此時 弘立等越視不救 投降恐後 通天之罪 曷勝誅哉(<김장군전>).

30) 賴將軍一死 永有辭於千秋 雖謂之功存社稷 未爲過也(<김장군전>).

31) 大賊壓營 衆寡懸絕 猶且從容擲陣 挺身督戰 一何壯也 胡兵來呼通事 意在講好 聞若不聞 終始力戰 一何義也 下馬倚樹 示以必死 數千之衆 血戰不降 一何勇也 手中長劍 死且不釋 有若更起而殺賊者 一何烈也 方春暖節 死肉不變 怒氣勃勃 其面如生 一何異也 自古戰死者 何代無之 孰若將軍壯義勇烈 如此其卓然者乎(<김장군전>).

는 아이콘이 된다. 앞의 ‘장’, ‘의’, ‘용’, ‘열’은 결국 하나의 귀결로 향하게 되는데, 그것이 ‘異’이다. 여기서 ‘이’는 일종의 異蹟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박희현이 증언을 통해 작품을 구성한 것이 단지 서술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만이 아님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박희현은 고금에 수많은 戰死者들이 있었지만, 김웅하만큼 ‘장’, ‘의’, ‘용’, ‘열’을 탁월하게 갖춘 인물은 드물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바로 김웅하가 죽으면서 보여준 ‘이적’ 때문이다. 死後異蹟을 통해 김웅하의 죽음은 숭고화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박희현은 김웅하가 비록 심하전투에서 패배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일의 성패로만 이야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³²⁾ 그의 논리를 따르자면, 김웅하의 죽음에 힘입어 중화는 후금군의 進攻을 지연할 수 있었고 조선은 사대의 의리를 지키며 종묘사직을 보전할 수 있었던 것이 된다. 또한 심하전투에서는 비록 패배하였지만, 김웅하의 항전을 통해 후금이 조선을 함부로 넘보지 못하게 하는 한편, 중화를 수호할 수 있었던 것이 된다. 박희현은 김웅하의 항전과 전사에 대해 비록 결과적으로는 패배하였지만, 이념에서만큼은 승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 승리의 증거는 김웅하가 보여준 사후이적이며, 이를 통해 김웅하는 숭고한 인물로 坐定할 수 있었던 한편, 나아가 중화의 수호자로 인식될 수 있었던 것이다.

3. 죽음을 기억하는 방식 - 숭고화

박희현이 <김장군전>의 서사를 통해 김웅하의 인물상을 재구성한 결과, 김웅하는 숭고한 인물로 좌정할 수 있었다. 이 장에서는 김웅하가 어떻게 숭고한 인물이 되는가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김장군전>에 드러난 문예미를 살필 수 있을 것이다. 비록 고려 무장 金方慶의 후손이라고는 하지만, 김웅하는 한미한 집안의 출신이자 전쟁 고아였다. <김장군전>에서도 김웅하의 유년기에는 이렇다 할 사건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어찌 보면 평범한 인물이 숭고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숭

32) 干城偉績未可以成敗論也(<김장군전>).

고화의 미적 전이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었다. 본 장에서는 <김장군전>에 보이는 悲壯에서 송고로의 미적 전이 과정을 살피고자 한다.

1) 영웅의 비장한 죽음

박희현이 그려낸 김응하는 자신에게 주어진 분한을 지키는 사람이며, 관직에 연연하지 않는 강직한 사람이었다. 재주와 용맹으로 말하자면 원수가 되어야하겠지만 일개 수령의 지위로 출전하게 된³³⁾ 김응하는, 동생 응해가 그의 뒤를 따르려는 것을 만류하고는 印信을 아전에게 맡기고 전장을 향해 떠나간다.

출발에 앞서 그의 가족들에게 이별하면서 뒷일을 처치하도록 하고, 아전에게 印信을 봉인하여 건네주면서 말하기를, “적을 만나면, 내 반드시 싸우다 죽을 것이니, 인신을 차고 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였다.³⁴⁾

위의 인용은 김응하의 앞날에 대한 복선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전장으로 떠나며 인신을 아전에게 맡기는 것은 김응하가 전장에서 돌아오지 못할 것임을 암시하는 부분이다. 박희현의 앞선 서술에서 확인한 것처럼, 김응하는 자신에게 부과될 분한을 싸우다 죽는 것으로 정한 듯 보인다. 정해진 운명을 미리 감지하고는 그것을 거부하는 대신 묵묵히 수용하는 모습은 비극미를 고양시키기 위한 문학적 장치에 해당하며, 해당 부분에서 서술자가 작품에 직접 개입하는 것을 통해 볼 때, 입전자 역시 작품을 서술하면서 비극적 효과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추론된다.³⁵⁾

좌영 가운데 한 장수가 있었는데 시종일관 전력으로 싸우다가 한 그루 나무에 기대어 손으로 치고 칼로 베기를 이루 셀 수 없이 하였습니다. 몸에 두

33) 語其才勇 則當爲大帥 而做一守令 何足展其志乎(<김장군전>).

34) 臨發 與其家人永訣 處置後事 封識印信 授郡吏曰 遇賊 我必戰死 不可佩往云(<김장군전>).

35) 박희현은 “其素定死綏之志 可傷也已”(<김장군전>)라 하며 비통해 한다. 여기서 ‘死綏’는 패전한 장수가 그 책임을 지고 죽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꺼운 갑옷을 입고 화살이 꽂혀 고슴도치처럼 되었지만 몸을 상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한 오랑캐가 창으로 그를 찌르자 손에 큰 칼을 움켜쥔 채 죽었는데, 끝내 손에서 검을 놓지 않았습니다.³⁶⁾

위의 인용은 정응정이, 자신이 후금군에게 들은 말을 전한 내용이다. 김응하는 두꺼운 갑옷을 입고 있었기에 온몸에 화살이 꽂혀 고슴도치처럼 되었어도 멈추지 않고 싸웠다. 온몸에 화살을 꽂은 채 칼을 휘두르는 김응하의 모습은 그의 무사로서의 기백을 보여주는 것이다. 김응하의 이러한 행위는 ‘있는 것’을 改造하려는 싸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있는 것’은 오랑캐인 후금의 중화에 대한 침범이요, 중화 질서의 위기이다. ‘있어야 할 것’은 후금을 격파하는 일이요, 중화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다. 중화 질서를 중심에 두고 이루어진 ‘相反’은 미적 범주의 차원에서, ‘비장’에 해당한다. ‘있어야 할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은 곧 이에 맞도록 ‘있는 것’을 개조하려는 싸움을 전개하도록 하며, ‘있는 것’의 개조는 매우 어렵고 희생도 크다.³⁷⁾ 따라서 김응하가 아무리 불굴의 의지를 지닌 장수라 할지라도, 衆寡不敵인 상황을 어찌할 수는 없다. 김응하는 그가 예견한바 싸우다 죽게 된 것이다.

김응하의 ‘있는 것’을 개조하려는 투쟁심은 움켜쥔 칼자루에 응축되어 있다. <김장군전>에서 김응하의 최후를 증언하는 정응정, 이장배, 최득종 등은 하나같이 김응하가 칼자루를 쥐고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는데, ‘움켜쥔 칼자루’는 중화 회복을 위한 투쟁의 상징이 된다. 김응하의 결사항전이 비극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장한 것이 됨은, 이처럼 김응하가 사직과 사대라는 이상을 추구하다가 죽음이라는 좌절을 맞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장군전>에 보이는 비장은 문학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그것과는 다소 이질적이다. 일반적으로 비장은 기존체제를 비판하는 성격을 지닌다고 한다.³⁸⁾ 그러나 <김장군전>에 보이는 비장은, 한편으로 중화 질서의

36) 左營中有一將 終始力戰 依於一樹 手劍擊殺 不可勝記 身被重鎧 矢集如蟻 猶莫能傷 有一胡以槍刺之 手把大刀而仆 終不捨(<김장군전>).

37) 조동일, 「미적범주」, 『한국사상대계』 1,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73, 475쪽 참고.

38) 조동일, 위의 논문, 515쪽 참고.

위기라는 현실을 문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화 질서라는 기존체제를 수호하려는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이질적 면모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은 비장의 미적 범주에 있어서 예외이자 <김장군전>이 보여주는 한계 지점과 맞닿아 있다. 박희현은 전장에 나서서 필사 항전하는 장수의 일반 의지를, 사직과 사대를 위한 것으로 특수화하였다. 그 결과 김응하의 비장한 최후는 박희현에 의해 나라를 지켜낸 위대한 공적으로,³⁹⁾ 사대의 의리를 지킨 행위로⁴⁰⁾ 평가되며 결국 미학이 지배층의 이념에 복무하게 된다. <김장군전>의 미학이 지닌 강한 이념성은 이와 같은 예외적 비장의 미적 범주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숭고로의 미적 전이

김응하가 보여준 희생은 개인에게 있어서는 비극이지만, 그의 죽음을 목도한 사람들에게는 비장의 미적 효과를 일으킨 바 있다. <김장군전>에서는 이러한 비장을 숭고의 차원으로 격상시키는 면모가 보인다. 이 점은 주목을 요한다.

오랑캐가 말을 전하기를, ‘대장의 명령에 따라 명나라 병사들과 조선군 병사들 가운데 죽은 자들을 거두어 묻었다. 이미 여러 날이 지난 후라 시신들이 모두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는데, 유독 버드나무 아래 한 시신만은 안색이 살아있는 것 같았고 오른손에는 칼자루를 쥐고 있어서 손을 풀 수가 없었다. 이 자는 너희 장군으로 끝까지 힘껏 싸우던 사람이었다.’라고 하였습니다.⁴¹⁾

위의 인용은 이장배가 오랑캐에게 들었다는 말을 전하는 부분이다. 죽어서도 칼자루를 놓지 않은 것을 사후경직으로 본다면 현실에서 전혀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다. 그러나 따뜻해진 날씨에 며칠 지난 시신이 썩지 않고 살

39) “干城偉績”，“功存社稷”(〈김장군전〉).

40) “二百年事大至誠之義”(〈김장군전〉).

41) 又有一胡來言 承奴酋之令 收瘞天兵及朝鮮軍死者 日已久 屍皆腐爛 唯柳下一屍 顔色如生 右手握刀柄不解 此乃爾將 終始力戰者云(〈김장군전〉).

아있는 듯한 안색을 보인다는 것은 사후이적에 해당하는 일이다. 물론 박희현이 이 사실을 증언을 통해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박희현도 이러한 사후이적을 절대적으로 믿었다고 보기에는 힘들다. 하지만 입전자가 단순히 증언을 그대로 전하는 역할만을 하는 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박희현이 김응하의 이적을 중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張順은 시체가 되어서도 활과 화살을 쥐고 있었고, 王政의 시신은 홀로 썩지 않았으니, 충의를 떨친 그 격렬함은 고급이 하나이다. 아군이 그를 칭송하고, 명나라 장수들도 그를 훌륭히 여길만한 것이다.⁴²⁾

위의 인용은 박희현이 김응하의 행위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내리는 부분이다. 張順과 王政은 중국 南宋 시대의 인물들이다. 장순은 원나라 군대에 포위된 襄陽城을 탈환하려다 전사하였고, 왕정은 도적을 소탕하려다 사로잡혔고 저항하다 죽었다. 장순과 왕정 모두 사후이적을 보인 인물이다. 장순의 시신은 강물에 떠내려 왔는데, 갑옷에 여섯 개의 창과 여섯 개의 화살이 박혀 있었으며 활과 화살을 손에 쥔 채 놓지 않고 얼굴은 살아있는 듯 怒氣가 가득했다고 한다. 왕정은 본래 죽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굴복하지 않았기에 결국 적들에게 죽임을 당하였는데, 다른 사람들의 시신은 썩어서 악취가 나는데도 왕정의 시신은 따뜻한 날씨에도 썩지 않았고 尸蟲도 생기지 않았다고 한다. 김응하의 경우, 안색이 산 사람 같았고 손에 쥔 검을 놓지 않았으며 따뜻한 봄 날씨에도 그 시신이 썩지 않았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김응하 1인이 장순과 왕정, 2인의 사후이적을 한꺼번에 보여준 것이 된다.

사후이적과 같은 비현실적인 서사는 擧事直敍를 바탕으로 하는 인물전⁴³⁾에서 다소 이탈한 요소에 해당한다. 인물전의 일반적인 특질을 위배하면서까지 박희현이 김응하 서사에 비현실적 사건을 이입한 것을 旌褒를 위한 과장으로만 볼 수는 없다. 박희현이 김응하의 사후이적에 주목했던 것

42) 張順之屍 尙持弓矢 王政之死 終獨不腐 忠奮所激 古今如一 我軍能誦之 天將能嘉之(<김장군전>).

43) 박희병, 「조선후기 「전」의 소설적 성향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1, 11쪽 참고.

은, 비장한 김응하의 죽음을 송고한 것으로 만들기 위한 나름의 글쓰기 전략이었기 때문이다.

사후이적은 일종의 ‘초월적 질서’의 ‘융합’을 의미한다. 이러한 초월적 질서와의 융합은 ‘송고’의 미적 범주가 지닌 특성이며, ‘있는 것’을 ‘있어야 할 것’으로 융합시키는 계기로 작용한다.⁴⁴⁾ 김응하의 비장한 죽음은 사후이적이라는 초월적 질서와 결합됨으로써 송고한 죽음으로 변화된다. 후금의 대군에 맞서서 홀로 싸웠던 김응하의 비장한 행위에 그의 사후이적이 추가 서술되면서, <김장군전>은 송고의 미학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미적 전이 과정을 거친 후, 박희현은 김응하에 대한 최종 평가를 내린다. ‘땅에서는 산악이요 하늘에서는 북두성이 되니, 그 명성이 중화와 오랑캐에 두루 미쳐 그 사적이 역사에 빛날 것’⁴⁵⁾이라는 박희현의 평가는 서사적 장치를 통해 구축된 송고의 미학적 결과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비장에서 송고로의 미적 전이의 과정을 통해, 전장에서의 죽음이라는 개인적 비극이 국가적 차원에서 전유되고, 나아가 송고로 격상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미적전이 과정은 초월적 질서와 융합되었다는 점에서 일종의 신화적 서술과 그 맥락이 연결된다. 이는 고대 신화에서 확인되는 송고의 미적 범주가 ‘소박한 樂觀’의 면모를 보이는 것⁴⁶⁾과 유사한데, 김응하 서사에서 종종 보이는 하는 역사적 가정의 지나친 낙관적 면모와 무관하지 않다. 조선군을 김응하가 지휘했었다면 후금을 막을 수 있었으리라는 안이한 대외인식은 <김장군전>이 보여준 송고의 미학이 끼친 영향과 무관하지 않다.⁴⁷⁾

44) 조동일, 앞의 논문, 490~491쪽 참고.

45) 及其當難 笑履鋒刃視同衽席 能審取舍死得其所 在地爲山嶽 在天爲星斗 名聞華夷 事光簡冊 (<김장군전>).

46) “古代神話에서의 崇高는 아직 ‘있어야 할 것’과 ‘있는 것’이 또는 支配層의 생각과 被支配層의 생각이 심각하게 분열되기 전의 思考이며 歷史創造의 共同的인 보람과 소박한 樂觀에 근거를 둔 人間의이며 現實의인 原理이다.” 조동일, 앞의 논문, 491~492쪽.

47) 김응하가 조선군을 이끌었다면 심하전투의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고 후금의 팽창 역시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인식은 흥세태나 이제에게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이들만의 특성은 아니다. 김응하 서사를 창작한 다수 문인들의 의식의 기저에는 크든 작든 이러한 역사 인식의 징후가 보인다.

3) <김장군전>의 표적

명과 후금을 동시에 접하고 있었던 조선은, 두 나라의 대립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어떻게든 입장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명은 재조지은을 이유로 조선에 후금을 정벌하기 위한 파병을 요청하였고, 후금은 명과의 대립에 조선이 개입하지 않기를 바랐다. 그러나 결국 광해군과 조선 조정은 심하전투에 나서는 명을 돕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파병의 결과는 조·명 연합군의 패배로 귀결되었다. 광해군이 파병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것은 익히 알려져 있다.⁴⁸⁾ 이러한 광해군의 외교 정책은 세력의 균형에 따른 ‘실리론’적 시각으로 간주할 수 있다.⁴⁹⁾ 그러나 조선 조정의 신료들은 광해군과 그 입장이 달랐다. 西人 李廷龜, 北人 이이첨, 박승중 등은 당파를 초월하여 ‘사대주의-명분론’에 근거하여 파병을 찬성하는 입장을 취했던 것이다. 당대 조선에서 사대는 정통성의 문제로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이기에 당색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가 아니었다.

최초의 『충렬록』은 1621년 경 소북인 박승중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 책에는 대북 이이첨과 서인 이정구가 나란히 서문을 썼다. 그 외에 당색을 초월하여 다수의 문인들이 輓詩를 지었다. 『충렬록』에는 <김장군전>뿐만 아니라, 당대 여러 신하들이 작성한 제문과 만시도 함께 있다. 초간본으로 보이는 『충렬록』^①은 상하 2권이 1책으로 되어 있는데, 『충렬록』^②에는 소북인 朴自興과 서인 趙繼韓이 만시를 지었고, 대북 이이첨과 서인 이정구는 서문을 썼다.⁵⁰⁾ 당시 조정 신료들의 외교적 입장은 김응하를 표상으로 『충렬록』에 결집되어 있는 것이다. 1621년 『충렬록』이 진상되었던 당시는 毛文龍 등이 요동을 정벌한다는 명목으로 조선에 재파병을 요청하고, 신하들은 이에 대해 파병을 주장하나 광해군이 이를 따르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던 때였다.⁵¹⁾ 『충렬록』이 만들어진 1621년의 정치·외

48) 한명기, 앞의 책, 244~255쪽 참고.

49) 오항녕, 『조선의 힘』, 역사비평사, 2010, 196~240쪽 참고.

50) 광해군 대의 외교노선에 대한 양반신료들의 태도는 당색을 초월해 공동전선을 구축하여 왕에게 대항한 것이었다. 계승범, 『조선시대 해외파병과 한중관계』, 푸른역사, 2009, 208쪽 참고.

51) 『광해군일기』 권169, 광해 13년 9월 병인.

교적 상황을 고려해본다면, 『충렬록』은 후금과 강화를 통해 실리를 취하려는 광해군을 압박하려는 목적의 결과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수의 연구자들은 『충렬록』을 심하전투 이후 명의 추가 파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것으로 보았다.⁵²⁾ 그러나 최소한 『충렬록』이 최초 간행된 시기에 있어서만큼은 광해군과 조정신료들이 입장을 공유했거나 혹은 이해관계가 맞았던 것으로 볼 수 없다. 첫째, 『충렬록』이 광해군의 정치·외교적 입장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둘째, 광해군이 『충렬록』에 어떠한 글도 신지 않았기 때문이다. 광해군은 명의 파병 요구에 대해 소극적이었음에 반해, 조정 신료들은 당파를 초월하여 명의 파병 요구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였다. 이러한 정황을 따져보면 『충렬록』이라는 텍스트를 명의 추가 파병 요구에 대한 ‘부드러운 거절’을 위한 대외적인 포석으로 국한시키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오히려 『충렬록』과 <김장군전>은 조정의 신료들을 중심으로 한 초당파적 요구가 결집된 결과물이자, 광해군을 압박하기 위한 신하들의 포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충렬록』은 김응하처럼 장렬히 전사하게 될 지라도 명과 연합하여 후금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텍스트이다. 광해군은 이러한 조정 신료들의 강력한 주장을 피하려고 하였고, 그 결과는 훗날 廢母의 혐의와 더불어 인조반정의 형태로 표면화되었다.

이는 <김장군전>의 서사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검증된다. <김장군전>에서 비판의 화살은 강홍립과 김경서에게로 향하고 있다. 물론 이는 부정적 인물의 비겁함을 비판함으로써 김응하를 높이려는 서술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비판의 화살이 유독 강홍립과 김경서만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은

52) 한명기, 앞의 책, 273~280쪽 참고. 이승수(2003), 임완혁(2005)의 선행연구에서도 한명기(1999)의 견해를 수용하여, ‘강홍립의 투항을 통해서 후금의 경계심을 풀 수 있었겠지만, 명의 의심을 풀 수 있는 근거는 부족했다. 따라서 『충렬록』의 편찬은, 후금군에 끝까지 저항한 김응하를 현창함으로써 조선이 명을 위해 최선을 다했음을 보이고자 한 정치·외교적 행위’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충렬록』이라는 텍스트와 이를 둘러싼 광해군과 조선 조정의 신료들과의 관계를 지나치게 획일화한 것이다. 『광해군일기』에서는 심하전투의 패배 이후 명과 후금 사이에서 조정 신료들과 왕이 서로 태업함으로써 평행선을 이루는 모습이 감지된다. 신하들의 경우 명에 보내는 서신의 경우 재빨리 작성하지만, 후금에 보내는 서신은 끝까지 작성하지 않고 있다. 광해군은 이러한 신하들의 태도를 비판하며 후금에 서신을 보내길 중용하지만 신하들은 끝까지 버티고 있다. 광해군 역시 신하들의 주청을 듣지 않고 판단을 계속 유보하고 있다.

주목을 요한다.⁵³⁾ 이는 텍스트 자체의 목적과도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김장군전>, 그리고 해당 작품이 실린 『충렬록』이라는 텍스트를, 강홍립과 김경서와 같은 인물을 표적으로 삼은 諷諫的 서술로 볼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도망한 이일원·신충업과 항복한 강홍립·김경서에 대해 ‘개돼지’만도 못한 인물이라며,⁵⁴⁾ 비난하는 서술의 이면에는 해당 텍스트의 목적이 내재해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심하전투가 발생하게 된 것은 명 황제가 자신의 나라를 침략한 후금을 정벌하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조선은 명을 아버지의 나라로 여겨 지극히 사대했고, 임진전쟁 때는 명의 출병으로 도움을 받았다. 조선은 명의 이러한 재조지은에 대해 의리를 지키는 차원에서 파병하였지만, 결국 犯上한 것도 김웅하를 죽인 것도 후금이다. 그러나 정작 <김장군전>에 김웅하의 용맹에 찬사를 보내는 ‘오랑캐’의 증언만 보일 뿐, 중화를 침범하여 위기에 빠뜨린 ‘오랑캐’에 대한 비난이나 비판은 존재하지 않는다. 도망한 자, 항복한 자에 대한 비난은 있으나,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후금에 대해서는 어떠한 비판도 하지 않는 것은 균형 있는 서술로 볼 수 없다. 더구나 이해당사자인 명은 대규모 원정을 준비하면서도 충분한 병력도 무기도 준비하지 않았다. 明軍의 지휘관들 역시 서로 갈등하고 있었으며 서로군 사령관 두송의 경우는 공을 탐하느라 경솔하게 전진하여 가장 먼저 전멸당하기도 했다.⁵⁵⁾ 이와 같은 외적 상황 속에서 개인은 장렬히 싸우다 전사하거나, 비겁하지만 투항하거나 도망할 수밖에 없다. 투항한 자는 투항한 대로, 도망한 자는 도망한 대로 그들만의 이유가 있을 테지만 박희현은 이를 筆誅하고 있는 것이다.⁵⁶⁾ 이를 고려하면 <김장군전>의 표적이 조선 내부임을 알 수 있으며, 그 대표는 바로 광해군이었다.

명에 대한 사대를 명분을 넘어선 이념의 차원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신하들이 광해군을 압박한 것은 『충렬록』을 진상하는 것만을 통해서였던 것은 아니었다. 1621년(광해 13) 9월 庭試의 科題로 ‘훈련도감에서 『충렬록』을

53) 弘立等越視不救 投降恐後 通天之罪 曷勝誅哉(<김장군전>).

54) 無恥之輩 曾犬豕之不若(<김장군전>).

55) 한명기, 앞의 책, 255~264쪽 참고.

56) 彼降虜兩帥 視不知愧 而亦能傳之 至於虜中 嘖嘖不已(<김장군전>).

바치다(擬本朝訓練都監進忠烈錄)’가 출제되었다.⁵⁷⁾ 당시 命官은 영의정이었던 박승종과 대제학이었던 이이첨이었다.⁵⁸⁾ 박승종은 소북으로 광해군대 초반에는 광해군과 외교적 입장을 같이 하였지만, 심하전투 이후 그 입장이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 심하전투 이후 후금은 조선에 지속적으로 차사를 보내서 화해의 國書를 요청한다.⁵⁹⁾ 광해군은 ‘胡書’에 대해 답하기를 신하들에게 중용하지만, 조정의 신료들은 怠業으로 맞선다.⁶⁰⁾ 호서에 대한 박승종의 입장은 처음에는 애매했다. 답신을 감정하라는 광해군의 명에 대해, 박승종은 광해군에게 떠넘기고만 있었다.⁶¹⁾ 그러나 곧 박승종은 입장을 바꿔 호서에 대한 답신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취한다.⁶²⁾ 광해군대 내내 후금에 대한 강경론을 펼쳤던 이이첨은 후금 사신의 목을 베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⁶³⁾ 조선은 끝내 강화를 요청하는 후금의 서신에 대한 국서를 보내지 못한다. 광해군은 지속적으로 비변사 등 조정의 신료들에게 답신할 것을 중용하지만, 신하들은 답신을 작성하지는 않고 광해군의 尊號를 올리겠다는 요청만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면, 심하전투 이후 외교적 문제에 있어서 광해군이 신하들의 우위에 있었다기보다는 이들이 서로 평행선을 이루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홍립 등은 통역관 河世國을 오랑캐의 진영으로 보냈었는데, 이번에는 오랑캐 병사가 먼저 통사를 불렀습니다. 장군은 이에 응하지 않았는데, 마침 검을 쥐고 적병을 베려고 할 참이었습니다. 큰 소리로 홍립과 경서의 이름을 부르며 말하길, ‘네놈들은 어찌 나라를 저버리고 생명을 구걸하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들은 사람들 가운데 마음 아파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⁶⁴⁾

57) 『重刊忠烈錄』 <科箋>.

58) 『重刊忠烈錄』 <科箋>; 이공익, 『練藜室記述』 別集 권9, 「官職典故 <登科摠目>.

59) 『광해군일기』 권142, 광해 11년 7월 乙未.

60) 한명기, 앞의 책, 294쪽에는 광해군 말년에도 후금과 국서를 교환하고 사절을 왕래하였다고 하였으나, 『광해군일기』에는 후금 서신에 대해 조선이 답한 기록이 없다. 광해군은 이미 때를 놓쳤다면 신하들의 태업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61) 『광해군일기』 권142, 광해 11년 7월 丁未.

62) 『광해군일기』 권142, 광해 11년 8월 戊午.

63) 『광해군일기』 권142, 광해 11년 7월 壬午.

<김장군전>에 드러난 강홍립과 김경서에 대한 비난은, 그 비판의 화살이 내부로 향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1619년 심하전투의 패배 이후 인조반정으로 인해 광해군이 실각하기까지의 역사는 복잡하게 전개되어 단선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1621년(광해 13) 3월, 후금은 瀋陽과 요동을 장악하였다. 평안도 지역으로는 요동 난민이 몰려들었고, 1621년 7월에는 모문룡이 압록강 하구의 용천 근방에 기지를 세워 후금을 공격하는 사건을 일으켰다.⁶⁵⁾ 당시 비변사와 조정의 신료들은 모문룡의 출병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던 반면, 광해군은 명의 장수들이 조선으로 넘어오는 것을 지극히 경계하였다.⁶⁶⁾ 1622년 3월, 요동을 상실한 명이 監軍御使 梁之垣을 칙서와 함께 보냈지만 광해군은 칙서에 따르지 않았고 감군어사는 소득 없이 명으로 돌아갔다.⁶⁷⁾ 광해군과 신하들 간의 대립은, 파병 이후에 더욱 심해졌던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지적한바,⁶⁸⁾ 1619년 광해군이 김응하의 사당을 명의 사신들이 지나는 길목에 지으라고 지시하였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⁶⁹⁾ 그러나 1621년에 간행된 『충렬록』이 명에 유입되어 조선의 사대 의리를 알리고자 하였다는 주장은 다소 비약이 아닌가 한다.⁷⁰⁾ 1619년과 1621년은, 비록 가까운 시기이나, 해당 시기의 동아시아의 관계는 지극히 역동적이었다. 따라서 1619년과 1621년의 정세 역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당대의 정치·외교적 맥락을 고려하면, <김장군전>과 이 작품이 수록된 『충렬록』은 후금과의 강화, 명의 청병에 대한 조정 신료들과 사대부들의 입장을 대변하

64) 先是弘立等送鄉通事河世國于虜中 至是胡兵先呼通事 將軍不應 方其援劍擊賊也 大聲呼弘立·景瑞之名曰 爾輩其可負國偷生乎 聞者莫不悼愧云(<김장군전>).

65) 『광해군일기』 권167, 광해 13년 7월 甲子.

66) 계승범, 앞의 책, 191~196쪽 참고.

67) 『광해군일기』 권177, 광해 14년 5월 癸丑.

68) 한명기, 앞의 책, 274쪽.

69) 『광해군일기』 권140, 광해 11년 5월 戊子.

70) 한명기는 앞의 책, 274쪽에서 李喜謙의 『靑野漫輯』 권6의 “仍以流入中國者 其意不專在於褒其人之節義 而實欲掩其密教之跡”이라는 기록에 의거하여, 『충렬록』이 광해군이 명의 의심을 풀기 위해 간행하였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희검은 숙종대의 인물인 데다, 『청야만집』이 서인-소론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기에 해당 구절을 준신할 수만은 없다. 이러한 견해가 문학 연구 쪽에도 그대로 영향을 끼쳐서 『충렬록』 텍스트의 역사적 수용 맥락을 획일화한 점은 재검토를 요한다.

는 텍스트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광해군을 압박하는 수단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4. 김응하 서사의 변화 양상

成大中이 1797년에 지은 『重刊忠烈錄』(1799) 跋文에 따르면, 『충렬록』은 총 네 번 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⁷¹⁾ 간행될 때마다 약간의 변경이 있었지만, 박희현의 <김장군전>은 변함없이 김응하의 대표적인 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응하가 지속적으로 회자된 것은 그가 대명의리를 지켰기 때문이며, 대명의리를 지키는 것은 곧 나라를 지키는 일이 되었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김응하에 대한 현창은 사대부들의 정치·외교적 입장을 대표하는 일이었으며 이러한 사대부들의 경향성은 조선조 내내 지속되었다.

만약 장군으로 하여금 명백히 절의를 세워 죽지 못하게 하였다면, 우리나라가 2백여 년 동안 지성으로 사대한 의로움에 그 어찌 볼 만한 것이 있었겠는가? 장군의 한 번 죽음으로 인해 길게는 千秋에 이르도록 할 말이 있게 되었으니, 장군의 공적이 사직을 보존한 것이라 일컫는다 해도 지나칠 것이 없다.⁷²⁾

조선은 그 왕조가 지속되는 시기의 반 정도를 명과 함께 하였고, 나머지 반 정도는 청과 함께 하였다. 아이러니하게도 중화인 명이 망해 가는 시점에서, 조선은 전력을 다해 사대하였다. 이는 대규모 병력을 심하에 파견한

71) 『충렬록』의 初刊은 1621년(광해 11) 훈련도감에서, 再刊은 김해부에서, 三刊은 1771년(영조 47)에 이루어졌다. 정조 대에 이루어진 『충렬록』 간행 작업은 四刊이자 重刊으로 『尊周錄』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諸家記述과 附錄을 추가한 것이다.(『충렬록』③ 跋 참고) 성대중의 跋은 1797년 쓴 것으로 되어 있고, 김응하의 6세손 金魯奎의 글은 1798년 쓴 것으로 되어 있다. 『충렬록』③이 완성된 것은 1799년인 것으로 보인다.(『정조실록』 권51, 정조 23년 2월 甲寅 참고).

72) 向使將軍不能明白立節而死 則我國家二百年事大至誠之義 其何以觀之 賴將軍一死 永有辭於千秋 雖謂之功存社稷 未爲過也(<김장군전>).

것에서 확인된다. 동시에 조선이 왜소해진 중화의 현실을 실감하게 된 것도 심하전투를 통해서 일 것이다. 하지만 조선의 사대부들은 『충렬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바 명을 선택했고, 광해군은 명과 후금의 충돌을 관망하는 입장을 택했다. 인조반정에 의해 광해군은 축출되지만, 그가 예견했던 전쟁은 정묘년과 병자년에 걸쳐 발발하게 된다. 명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은 중화를 자임하게 된다. 그럼에도 조선은 중국 정통 왕조였던 명을 포기하지 않는다. 지켜야 할 중화가 사라졌음에도,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조선 사대부의 의지와 노력은 강고한 이데올로기로 자리 잡게 된다. 김응하는 이러한 중화 수호의 숭고한 상징이 되었고 때때로 그 이데올로기를 위해 呼名되었다.⁷³⁾ 전술한 것처럼 미적 범주인 ‘숭고’는 현실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숭고가 이념화되면서 김응하의 비장한 죽음은 사직을 보존하고 중화를 사수한 것으로 그 가치가 고양될 수 있었다.

『충렬록』이 여러 차례 간행되었다는 사실은 조선시대 동안 김응하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호명이 반복되었음을 가리킨다. 전술한 것처럼 김응하 서사는 기억과 증언에 의존한 것이었다. 실제 있었던 일을 직접적으로 기술한 것이라기보다 재구성한 것이었다. 이는 일종의 類似事實이 되어 꾸준히 재생산되었다.⁷⁴⁾

김응하 서사는 먼저 창작된 시기를 중심으로 두 종류로 분류된다. 첫째는 김응하와 동시대를 경험했기에 김응하와 관련한 사실을 직접 접할 수 있었던 문인들의 작품들이고, 둘째는 김응하와 다른 시대를 경험했기에 관련 기록을 보았거나 풍문으로 김응하와 관련한 사실을 접했던 문인들의 작품들이다. 전자는 홍익한과 김육의 김응하 서사가 해당되고, 후자는 박태보,

73) 영조는 명이 멸망한 갑신년(1644)이 돌아온 것에 감회를 느낀 바가 있어서 『충렬록』을 등사하여 올리도록 한 바 있다.(『영조실록』 권103, 영조 40년 1월 丙寅).

74) 김응하에 대한 유사사실을 재생산한 작품들을 대략적인 창작 시기를 기준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① 洪翼漢(1586-1637), <金將軍傳後叙>(『花浦先生遺稿』 권4), ② 金埴(1580-1658), 『海東名臣錄』金應河條, ③ 朴泰輔(1654-1689), <書金將軍逸事>(『定齋集』 권4), ④ 洪世泰(1653-1725), <金將軍傳>(『柳下集』 권9), ⑤ 李栽(1657-1730), <金將軍應河傳>(『密菴集』 권16), ⑥ 洪良浩(1724-1802), 『海東名將錄』金應河條. 이들 작품들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은 이승수(2003), 임완혁(2005)에서 다룬 바 있다.

홍세태, 이재, 홍양호의 김응하 서사가 해당되는데, 이들의 사이에는 명의 멸망(1644)이 놓여있다. 이들 작품 가운데 박태보의 것만 제외하고, 모든 작품에서 김응하의 사후이적이 포함된 송고화가 드러나고 있다.

이상의 시기적 구분은 김응하 서사는 내용적 차원에서 다시 다음의 세 단계의 변화 과정을 보여준다. 먼저 그 첫 번째 단계는 ‘정치적 主觀의 추구 경향’이다. 대표적으로 강홍립에 대한 적개심을 강하게 드러낸 洪翼漢(1586~1637)의 작품을 들 수 있다. 홍익한은 三學士 가운데 한 명으로, 그의 『花浦先生遺稿』 권4에 <金將軍傳後叙>가 실려 있다. 이 작품은 『충렬록』이 간행되고 그리 오래지 않아 창작된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 표현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서사의 전반적인 골격의 측면에서 박희현의 그것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일화가 추가되어 있는데, 이는 김응하의 칼과 관련된 것이다. 김응하가 평소 寶劍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평생의 일이라고 했지만 아무도 그 뜻을 알지 못했다가, 김응하가 죽어서도 놓지 않았던 칼이 일전의 그 칼이었다는 것이다.⁷⁵⁾

홍익한의 서사가 보여준 특이한 점은, 김응하에 대한 현창과 강홍립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는 점이다.⁷⁶⁾ 홍익한은 강홍립이 후금군과 미리 공모해서 전쟁을 방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⁷⁷⁾ 강홍립 대신 김응하와 같은 장수들을 격려하였다면 후금군이 침범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지나치게 낙관적인 가정을 보여준다.⁷⁸⁾ <김장군전>과 비교하면 홍익한의 김응하에 대한 송고화는 상당히 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러기에 지나친 낙관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결과 홍익한은 김응하의 죽음은 개인에게는 불행이지만, 한편으로는 불후의 이름을 남길 수 있기에 다행이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강한 정치적 주관을 확인할 수 있다.⁷⁹⁾

이상의 지점은 홍익한과 비슷한 시기를 살았던 金堉(1580~1658)의 경우

75) 又嘗畜一寶劍 恒言吾平生事業 惟是而已 人未曉其意 只笑其長大好帶 及是死 猶握不釋者 卽此劍云 其弔中義氣所素濫積 挑燈之看 磨頸之祝 迺今尤驗(홍익한, <김장군전후서>).

76) 噫 弘立之肉 其足食乎 恨不得剖其心 以祭忠義之魂也(홍익한, <김장군전후서>).

77) 時弘立等已與賊通謀 稍無戰色 咸袖手傍觀(홍익한, <김장군전후서>).

78) 安知夫勇夫健將 自此益激厲 爲國家干城鎖鑰 而使外寇不得窺覬竊發(홍익한, <김장군전후서>).

79) 公之死誠不幸 而公之死亦幸耳(홍익한, <김장군전후서>).

를 대비해 보면 분명해진다. 서인 漢黨 계열이었던 김육이 1651년에 펴낸 것⁸⁰⁾으로 보이는 『海東名臣錄』에도 김응하에 대한 인물전이 있다. 박희현의 <김장군전>과 대동소이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다만 다른 점은 항복한 강홍립과 김경서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錄’과 ‘叙’라는 문체의 차이를 무시할 수는 없다. 객관적 기록의 성격을 지닌 『해동명신록』과 김응하 서사를 읽고 쓴 <김장군전후서>에서 정치적 주관의 개입 정도가 다르다는 점을 무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김육이 서인 한당 계열의 실용적 관점을 지닌 인물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홍익한과 김육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서사에 있어서 주관의 개입 정도에 있어서의 차이가 문체적 차이에서만 기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한당과 대립했던 서인 山黨 계열의 송시열이 김응하의 碑文에서 ‘密旨說’을 제기하며 강홍립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⁸¹⁾을 상기하면, <김장군전> 이후 어느 정도 강한 정치적 주관의 개입 경향이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는 ‘事實 추구의 경향’으로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객관을 추구하는 이러한 경향은 朴泰輔(1654~1689)에게서 강하게 드러난다. 박세당의 아들로 서인인 박태보는 <書金將軍逸事>를 지었는데, 그는 宣川 지역에 유배를 갔다가 동네 부로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⁸²⁾ 이 작품은 다소 흥미로운데, 그 서사 방식이 일종의 ‘르포르타주(reportage)’와 흡사하기 때문이다. 박태보는 김응하의 결사항전이 있었던 때는 이미 조선군이 궤멸된 이후이기 때문에, 김응하의 최후를 전달했던 사람들은 기실 비겁하게 도망친 자들이고, 그러하기에 그들의 이야기를 끝이곧대로 믿으려 하지 않는다. 『충렬록』의 기록마저도 사실 도망자이거나 포로였다가 도망쳐 나온 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기에 믿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⁸³⁾ 박태보는 유배지에 처한 몸임에도 평소 궁금했던 김응하의 모습을

80) 김육의 연보인 <潛谷年譜>에 1651년(효종 2)에 『해동명신록』을 저술했다는 기록이 있다.

81) 彼二賢者 乃敢稱有密旨 去順效逆 使我禮義之邦 舉論於禽獸之域(송시열, 『宋子大全』 권171, <詔贈遼東伯金將軍廟碑>).

82) 문면의 기록으로 보아, 박태보는 1677~1678년경에 이야기를 듣고 그 이후 해당 작품을 쓴 것으로 보인다.

83) 夫應河挺身獨戰 殲於軍潰之後 而傳應河事者 皆棄陣竄之輩 蓋亦有不知而妄稱者 其不可槩信 自《忠烈錄》已然 況於今之傳者乎(박태보, 『定齋集』 권4, <書金將軍逸事>).

찾아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 심하전투의 생존자를 만나고자 하였으나 대부분 이미 죽었고, 한 명을 만났지만 이미 70여 세가 되어 귀와 눈이 멀었다고 한다.⁸⁴⁾ 김응하가 군수로 지냈던 지역이기 때문인지, 선천 지역 사람들은 김응하가 죽은 지 60여 년이 지났음에도 다들 김응하의 이야기만 한다는 것이다. 박태보는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에 참여하여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한 뱃사공은, 강홍립의 中營에 있었던 金麗奇라는 사람에게 들었던 김응하의 최후를 박태보에게 이야기 해 주었다.⁸⁵⁾ 일종의 ‘전쟁담’인데 전투 장면이 마치 직접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실감난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자신이 들은 것을 이야기하고 서로 와글와글 떠들어댄다. ‘或曰’이 반복적으로 쓰인 것을 보면 여러 사람들이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하는 모습을 생생히 전달하려는 작가의 의도가 엿보인다.

“김장군이 막 재를 넘어가려 하는데, 한 노파가 지나가면서 ‘군사들이 재를 넘어가지 못할 거요.’라고 했다. 그랬더니 그 노파를 불러 세워서는 김장군이 상서롭지 못하다고 노파를 베어버렸다지. 재를 넘어갔더니, 과연 군대가 전멸해버렸지.”

“못 믿겠어.”

“신령님이었던 게야. 김장군에게 미리 알려 준거지. 하지만 김장군이 이미 죽을 각오를 했는데 어찌 말릴 수 있었겠냐구.”

다른 사람이 말하였다.

“김장군이 활을 쏘았는데, 어느덧 화살이 떨어졌지. 좌우를 돌아보며 말을 찾아 달아나려 했지. 좌영의 군관 池得男이가 글썽 먼저 김장군의 좋은 말을 훔쳐 타고 달아난 거야. 김장군은 결국 죽게 되었지. 김장군의 자손이 소송해서 득남을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다. 우연히 만났더니 풀려났봐.”

“득남이가 죽음을 면했다니, 다행이구먼.”

“원통한 일이지.”⁸⁶⁾

84) 得一人 年七十餘 耳聾眼枯 神耗不能應人語 不可問以當時事(박태보, <서김장군일사>).

85) 虜多取敗馬連屬之 鐵騎隨馬後 以兵器驅馬 馬奔逸決拒馬木 左營砲發 虜前者顛 後者蹂躪而進 左營兵單不能支 師遂亂 應河失馬 步就大柳下 倚柳自射 殲者甚多 虜兵墻立林列 而應河所立百步之內 常廓如也 數食頃 虜始亂進 而應河死矣(박태보, <서김장군일사>).

박태보는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알고 있던 내용에 비추어 논하기도 하면서 사람들과 계속 이야기한다. 그러다 김응하의 通引이었던 金鐵賢의 손자를 만나게 된다. 金遇迎은 김철현의 유복자인데, 박태보가 만난 사람은 김우영의 아들이다. 김철현은 후대의 김응하 서사에 김응하와 함께 등장하는 인물로 박태보의 기록에서 그 구체적인 모습이 처음 등장한다. 본래 김철현의 영정은, 龍灣의 김응하 사당에 김응하의 영정 옆에 있었다고 하는데, 병자전쟁 때 사당이 불타면서 소실되었다고 한다. 김철현의 영정은 이후 정조 대에 김응하의 영정과 함께 묘당에 모셔지게 된다.⁸⁷⁾ 박태보는 김철현의 이야기를 전한다.

김장군이 버드나무에 의지해 화살을 쏠 때는 이미 전군이 흩어진 상황이었다. 김철현만 홀로 도망가지 않고, 김장군의 갑옷 속에 자신의 몸을 숨기고 화살을 건네주고 있었다. 화살이 떨어지자 철현이 김장군에게 말했다.

“화살통이 비었습니다!”

김장군이 돌아보고는 탄식하여 말했다.

“너도 도망가고자 하느냐?”

“소인은 장군과 함께 죽고자 마음먹었습니다. 장군과 함께 같은 칼에 얹어져서 죽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소인이 살고자 장군을 떠나지 않았음을 밝혀 주십시오!”

결국 김장군과 함께 스스로 칼로 찢러 죽었다.⁸⁸⁾

심하전투에 패배한 지 60여 년이 지나는 동안, 김철현의 일화는 잊혀졌다. 그는 김응하의 영정과 함께 사당에 그 영정이 모셔졌던 충직한 통인이

86) 或曰 初應河行未踰嶺 有老嫗過而言曰 師未可踰嶺 盍姑止斯 應河以爲不祥 收斬之 遂踰嶺 師果敗 或曰 未可信也 或曰 神蓋先告應河 而應河死志已決 豈可止哉 或者又曰 應河射 移時 矢且盡 方顧左右 索馬將走 左營軍校池得男 先已竊騎應河善馬逃還 應河遂沒 應河子孫 訴繫 得男獄 將殺之 邂逅得免 或曰 得男之免死 幸耳 或曰 冤(박태보, <서김장군일사>).

87) 『정조실록』 권46, 정조 21년 2월 甲申.

88) 方應河倚柳射 一軍皆散 獨鐵賢守不去 伏應河甲裏給矢 矢盡 鐵賢呼曰 矢房空矣 應河顧歎曰 汝欲走乎 鐵賢曰 小人義與將軍同死 請與將軍俱伏一劍 以明小人之不去將軍而生 遂與應河伏劍而死(박태보, <서김장군일사>).

었지만, 선천 사람들에게만 회자될 뿐 나라 안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잊힌 인물이다. 박태보는 선천 사람들에게 듣게 된 김철현의 일을 기록함으로써 이 일화를 알리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박태보는 김철현의 이야기가 그럴듯 하지만 『충렬록』에는 실려 있지 않다고 하면서, 다만 이이첨의 <忠烈錄序>에 ‘깃발 든 한 사람과 화살을 바치던 한 사람’이 언급된 바 있고,⁸⁹⁾ 이와 관련된 그림도 있어서,⁹⁰⁾ 이 이야기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라 생각한다. 그러나 『충렬록』의 기록이 상세하지 않았기 때문에 떠도는 이야기에 오류가 없을 수 없다고 말한다.⁹¹⁾ 박태보가 김응하의 일사를 쓰게 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충렬록』에서 미처 기록되지 못한 이야기에 대해 보충하고자 한 것이다. 아울러 강한 객관의 추구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차적으로는 심하전투가 있는 지 60여 년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작품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태보가 들었던 김철현의 일화에서, 김응하의 최후는 『충렬록』의 그것과는 다르다. 박희현의 <김장군전>에서는 김응하가 오랑캐의 창에 찔려 죽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박태보는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즉, 당시 김응하의 주위에는 조선인 병사는 하나도 없었고 후금 병사들만 있었는데 누가 이들의 문답을 듣고 그것을 전하였냐는 것이다.⁹²⁾ 어떤 사람은 김장군이 아침부터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활을 쏘 나머지 활이 부러지고 오른손 엄지손가락도 부러져서 칼을 뽑아 싸우다 죽었다고 하는데,⁹³⁾ 박태보는 너무 자세한 이야기는 오히려 의심스럽다고 말한다.⁹⁴⁾

89) 執幟一人 奉矢一人 冒鎗當鋒而投命者 不忍去也(이이첨, <충렬록서>).

90) 『충렬록』①에 있는 <依柳射賊圖>인 것으로 보인다.

91) 今以所聞鐵賢事甚疑《忠烈錄》所不載 唯李爾瞻爲《忠烈錄序》有曰 觀其卷中 八尺長身 奇偉 儼儼 有介冑不可犯之色者 將軍之像也 執幟一人 奉矢一人 冒鎗當鋒而投命者 不忍去也 蓋畫記也 則知此事之傳 有由來矣 獨恨其記之不詳 而疑今所聞之不能無謬也

92) 今云應河與鐵賢伏劍而死 是不可質矣 然當是時 我軍既皆逃生而圍住應河者 盡建州也 其問答之言 果孰聞而孰傳之也(박태보, <서김장군일사>).

93) 或言 應河自朝至日中射 角決生火 右母指脫 乃拔劍而鬪(박태보, <서김장군일사>).

94) 其傳之愈纖悉而愈可疑(박태보, <서김장군일사>).

선천의 병사들과 백성들이 이미 김응하의 능력에 감복했었고 나라의 풍속이 평소 건주 오랑캐들을 가볍게 여겨서 모두들 분발하여 말하기를, ‘墨綽(세속에서는 건주 오랑캐들을 墨綽이라 불렀다.)을 섬멸할 수 있을 것이니, 돌아오면 공적을 포상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노약자나 절름발이가 아닌 자들은 모두 김응하를 따라 갔다. 이에 심하 전투에서 선천의 백성들 가운데 죽은 자들이 많았다. 용만의 사당이 불타서 선천의 백성들은 모두 선천에서 김응하에게 제사를 지내고자 하였는데, 선천부에 부임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꺼려해서 끝내 행해지지 못했다. 부사 李經漢이 監司에게 한 번 청한 적이 있으나 감사가 그를 막았다. 후에 감히 다시 청하는 사람이 없었다.⁹⁵⁾

박태보가 김응하의 일사를 남긴 것은 『충렬록』에서 누락된 이야기들을 기록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위 인용문에 따르면 박태보가 김응하의 일화를 기록한 것이 단지 散逸된 일화를 남기기 위해서였던 것만은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선천의 병사와 백성들이 김응하를 따라 나섰던 것은 김응하의 능력 때문이기도 했지만, 평소 나라의 풍속이 건주인들을 알보았기 때문에 결국 전투에 따라 나섰던 선천 백성들이 살아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이다. 결국 박태보는 심하 전투에서의 패배가 다만 선천 백성들만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후금을 알보았던 것에서 기인한 문제라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심하 전투에서 희생된 김응하에 대한 제사마저도 끊어진 현실을 제시하는 박태보의 언술에서 그의 비판 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김응하 서사 가운데 유일하게 송고로의 미적전이가 없는 박태보의 서술에서 초기 서술의 주관적 면모가 전환되어 객관적 인식의 경향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는 박태보 개인의 성향과 무관하지 않으나, 심하 전투 이후 꽤 시간이 흘렀고 아울러 명의 멸망 이후 창작된 작품이라는 점에서 객관적 인식의 경향이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박태보에 의해 전환되었던 객관적 인식이 다시 정치적

95) 宣之軍民 旣服應河之能 國俗素輕建虜 皆奮曰墨綽(俗呼建虜爲墨綽)可芟夷之歸策功耳 故非老弱踣者 悉從應河行 於是深河之役 宣民之死者爲多 龍灣之祠旣焚 宣民皆願爲應河俎豆於宣 莅府者多畏忌 事竟不行 府使李經漢嘗一請於監司 監司沮之 後無敢復議者(박태보, <서김장군일사>).

주관의 강화로 변화하는 것으로 ‘이념적 포섭과 강화’로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이르르면 대명의리가 한층 강화되는 양상이 보인다. 꼼꼼히 따지던 박태보와는 달리, 유사사실들이 마치 실제 사실인양 전이되며, 다양한 인물들이 삽입되면서 서사의 편폭이 확대되는 경향도 보인다. 김응하 서사에 추가된 인물은 유명한 인물이라기보다는 匹夫로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김응하와 함께 항전하다 죽은 인물들이다. 이는 대명의리의 진작을 위해 조선 후기 旌表 사업이 확대된 것과 관련되어 있는데, 계급이나 계층을 초월하여 대명의리를 중심으로 결속을 꾀하던 지배층의 움직임과 밀접한 연관을 지닌다. 이는 대명의리라는 이데올로기에 다양한 계층의 인민들을 포섭하는 이념적 강화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金英哲傳>의 작가로 알려져 있는 中人 洪世泰(1653~1725)도 <金將軍傳>을 남긴 바 있다. 홍세태의 <김장군전>에 보이는 기본 서사는 박희현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박희현의 전에서는 증언으로 주회인들의 증언으로 이루어졌던 일화들이 기정사실화되어 서술되어 있는 점에서 다르다.⁹⁶⁾ 이와 더불어 몇 가지 추가된 사실들이 보이는데, 명군 장수인 喬一琦가 강홍립에 대한 비난하며 자결하는 부분,⁹⁷⁾ 김철현의 죽음,⁹⁸⁾ 명 神宗 황제가 김응하에게 遼東伯을 제수한 사실⁹⁹⁾ 등이 추가 되었다. 홍세태의 서술에서 그가 김응하와 관련된 서사를 史實화하고 있음을 확인함과 동시에 기존의 서사가 이입됨으로써 이야기가 풍부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어떤 사람에게 김응하가 버드나무에 기대어 적에게 화살을 쏘고 있는데 강홍립 등은 두 손이 등 뒤로 묶인 채 오랑캐에게 항복하는 모습이 그려진 그림이 있어 강홍립에게 보여주었다. 홍립이 그것을 보고는 화를 내고 부끄러워하며 죽었다.¹⁰⁰⁾

96) 임완혁, 앞의 논문, 202쪽 참고.

97) 一琦見弘立有反意 叱曰 反堅 吾不爲汝縛與賊 大呼一躍 投絕崖而死(홍세태, 『柳下集』 권9, <金將軍傳>).

98) 時有卒史 一人奉矢服在側 又一人執幟前立 應河死 二人亦同死(홍세태, <김장군전>).

99) 神宗皇帝下詔褒贈遼東伯(홍세태, <김장군전>).

100) 人有畫應河倚柳射賊 弘立等面縛降虜狀 以示弘立 弘立見之 悲愧而死(홍세태, <김장군전>).

김응하 서사의 확대 경향은 일화의 추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소설의 내용이 직접적으로 이입되는 경향도 확인할 수 있다. 홍세태의 <김장군전>에는 權忭(1599~1667)의 <姜虜傳>(1630)의 서사가 이입되어 있다. 인용된 부분의 내용은 권척의 <강로전>에만 나오는 이야기이며, 다른 김응하 서사에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다. 홍세태가 소설을 끌어다가 인물전에 사용한 것은 전과 소설의 장르적 친연성을 보여 주는 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홍세태가 이처럼 강홍립의 후일담까지 끌어와서 서사를 전개한 것은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였다. 홍세태는 다소 무리한 역사적 가정을 하고 있는데, 만약 비겁한 강홍립이 아니라 김응하에게 병사를 맡겼었다라면 오랑캐를 섬멸할 수 있었을 것이며 명이 멸망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한다.¹⁰¹⁾ 아울러 그는, 마지막까지 김응하의 곁을 지켰던 자들도 김응하와 마찬가지로 烈士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¹⁰²⁾ 김응하를 중화의 수호자로 격찬하는 동시에 그와 함께 희생당했던 사람들까지 열사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은, 비록 중화주의의 시각에서 벗어난 것은 아닐지라도 소외된 자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영남 南人 李裁(1657~1730)도 『密菴集』 권16에 <金將軍應河傳>을 남겼다. 이재는 본전을 시작하기에 앞서 간단하게 자신이 김응하 서사를 집필하게 된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재는 김응하의 후손으로부터 『충렬록』 1본을 얻어 보게 되었는데, 아버지의 뜻을 이어 김응하를 입전하였다고 한다.¹⁰³⁾ 이재의 김응하 서사는 전체적인 서사 전개에 있어서는 박희현의 <김장군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재는 일화를 추가하거나,¹⁰⁴⁾ 김응하의 목소리를 대화의 형태로 제시하는 한편, 간략하게 처리되었던 전투 장면을 보다 상세화함으로써 김응하 서사를 실감나게 전하고 있다. 또한 이

101) 向使二萬精銳 屬應河以討賊者 虜可破也 (….) 應河死後二十七年 大明遂亡 於是人益思而悲之(홍세태, <김장군전>).

102) 然應河一死 使天下知我東有忠義死節之臣 猛氣餘烈 足以折虜心 而其奉矢執幟者亦烈士也(홍세태, <김장군전>).

103) 世所謂金將軍傳 猥醜不堪讀 爲可慨 己嘗因其後孫求得《忠烈錄》一本 蓋欲早晚立傳 參以議論 以傳信來世 亦欲自抒其悲憤(이재, <김장군응하전>).

104) 김응하의 어릴 적 이야기는 별로 전해지는 것이 없었는데, 이재는 김응하의 의지적 면모를 보여주는 일화를 추가하였다: “嘗病癘危死 其友持藥呼曰 君非自許以馬革裹尸者邪 今寧死於一疾乎 應河瞋目飲盡三碗乃蘇”(이재, <김장군응하전>).

재는 전의 말미에 자신이 우연히 한 선비의 집에서 보았던 소설의 기록을 간단히 정리해서 덧붙이고 있다. 이것은 조선군 장수 李繼宗과 李有吉, 명군 장수 교일기와 관련된 것으로 本傳과 神道碑에도 전하지 않는 이야기라 덧붙인다고 하였다.¹⁰⁵⁾

이재는 김응하 서사를 마친 후 史評 부분에서 강개한 영남 남인의 면모를 보여준다. 宣祖의 “萬折必東”¹⁰⁶⁾을 언급하며, 김응하가 있었기에 우리가 禽獸가 되는 것을 면했다고 한다.¹⁰⁷⁾ 그는 더 나아가 명의 총병관 유정과 비교하면 김응하가 더 잘 싸웠고 열렬했다는 평가를 내림으로써 조선적 자부심마저 보여주고 있다.¹⁰⁸⁾ 이재는 퇴계의 학맥을 이은 영남 남인답게 心性論에 근거한 주장을 펼치며 식자들을 강경하게 비판한다.¹⁰⁹⁾ 반면 이재의 당시의 정세에 대한 인식은 지나치게 주관적이며 낙관적이다. 심하전투에서 후금의 정예병들의 기세를 꺾었다면 후금이 10여 년은 세력을 떨치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나라가 그 틈에 성을 지키고 병사들을 훈련시켰다면 병자·정묘전쟁과 같은 치욕은 없었을 것이라고 하기 때문이다.¹¹⁰⁾ 비록 이재가 느꼈던 역사에 대한 아쉬움은 이해할 수 있지만, 지나친 역사적 가정을 통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것은 그의 한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재의 면모는 김응하 서사가 후대로 가면서 보이는 이념의 강화 경향을 대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05) 偶見一士人家小說 其中有記應河事 而載中營中部將李繼宗戰死事 又曰一元既敗走 應河與左部將李有吉走山上結陣 片箭盡 以長箭射殺賊無算 有吉亦射倒十餘級 尋中矢死 又曰應河被堅甲 賊槍不能入 以手從後捲甲刺之 遂仆地 又曰喬一奇本遼東人 憤朝廷不用平戎策 祝髮爲僧 及虜陷撫順 朝廷思其言 召爲鎮江遊擊 及戰敗死 遼東人莫不流涕云 此皆本傳及神道碑所不載 故劄而附之(이재, <김장군응하전>).

106) 선조가 임진전쟁 중 원군을 파병해준 명의 은혜에 고마움을 표현한 말로, 모든 강물이 굽이쳐 흘러가더라도 결국 동쪽의 황해로 흘러들어가는 것처럼 천자에 대한 제후의 뜻은 변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107) 微應河一死 舉一世幾不免爲禽獸矣(이재, <김장군응하전>).

108) 劉將軍號爲中朝善用兵者 擁大衆 未及出一奇 爲其所蹂躪 獨應河提步卒不滿數千 當乘勝之虜 身所擊殺如此 信善戰且烈哉(이재, <김장군응하전>).

109) 且應河旣用武進 寧有學問講習之素 特以其忠義之性 鬱於中而作於外 能殺身成仁 無求生以害仁 其視攻文辭以取貴 擁金貂自尊大者 一朝俛首帖耳 甘心犬豕之行之爲 其賢不肖何如也(이재, <김장군응하전>).

110) 或者以爲是役也 虜蓋悉其精銳 如使爲中勁者出一隊以相援 嘖其銳而踏之 虜必十年不振 我以其隙 修城鍊卒 以壯邊威 庸詎有丙丁之辱 信斯言也(이재, <김장군응하전>).

洪良浩(1724~1802)가 1794년 경 편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海東名將傳』에도 김응하 서사가 포함되어 있다. 홍양호는 자신의 『해동명장전』 金應河條에서 선행한 김응하 관련 일화를 집대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이재의 <김장군응하전>에 삽입되었던 일화가 거의 그대로 삽입되어 있는가 하면,¹¹¹⁾ 김철현의 일화도 삽입되어 있다. 강홍립과 관련한 밀지설 역시 기정사실화하여 포함되어 있다. 다만 그 서술에 있어서 대명의리를 강조하는 경향이 두드러진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데, 이를 기존의 명분론에서 이탈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¹¹²⁾ 그러나 홍양호가 시종일관 객관적인 어조를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서술이 명분론에서 완전한 이탈로 간주하는 것은 과도한 추론으로 보인다.

홍양호는 김응하 서사에 김응하의 최후와 더불어 김응하의 동생인 김응해의 일화까지 삽입하여 형제의 충절을 아울러 정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인물들을 추가하고 있는데, 특이한 인물로 심하전투에 참여한 桂杠이 있다.

계강이라는 자는 宣川 사람이다. 용맹이 뛰어나고 힘이 남달리 세서 고을을 횡행하여도 누구도 함부로 하지 못했는데 고을 사람들이 그를 근심거리로 여겼다. 그리하여 그를 제거하고자 깊은 연못가에서 술자리를 열었다. 높은 바위 위에서 술을 마시다가 반쯤 취했을 때, 계강을 바위 아래로 밀었다. 그러나 그는 몸이 연못에 닿기도 전에 풀쩍 뛰어올랐다. 여러 사람들이 놀라 혼이 나간 듯 하였는데, 계강은 “겁먹지 마시게. 다 내가 착하지 못했기 때문이겠지.”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이내 마음을 다잡고 행동을 조심하였다. 심하전투에 김응하와 함께 참여하여 오랑캐를 무수히 죽이고는 최후에 힘이 다하여 죽었다.¹¹³⁾

異人說話的 서술이 엿보이는 이 인물은 용맹하고 힘이 셋지만, 마을을

111) 騎而馳之 自於馬上 脫其兜鍪囊韉而投之地 跳下取之 復跳而上 其勇捷如此(홍양호, <김응하>).

112) 임완혁, 앞의 논문, 208쪽.

113) 桂杠者 亦宣川人也 勇猛絕倫 膂力過人 橫行州里 莫敢誰何 邑人患之 乃欲除去 設會於深潭 上層巖 酒半酣 推杠巖下 身未及潭 蹣躑而上 諸人褫魄 杠曰 勿怯也 此我不善之故 仍治心操行 渡遼之役 與應河 殺賊無數 最後力盡而死(홍양호, <김응하>).

횡행하는 자였다. 마을 사람들이 그를 연못에 떠밀어 죽이고자 하였지만, 그는 풀썩 뛰어 올라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 겁을 먹은 마을 사람들이 당황하는 것도 잠시, 계강은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는 면모를 보여준다. 남달리 힘이 센 것도 이인적 요소이겠지만, 오히려 자신을 죽이고자 한 마을 사람들을 이해하고 자신의 행동을 고치는 것이야말로 이인적인 면모라고 할 수 있다. 史料에는 잡히지 않는 계강이라는 인물의 일화는 아마도 지역에 전해 내려 온 이야기인 것으로 보인다. 홍양호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까지 포함시켜 김응하 서사의 편폭을 늘리는 한편, 잊힌 인물들을 역사의 장으로 호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설화적인 내용을 이입하여 내용을 풍부하게 하는 한편, 흥미 요소까지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이상 김응하 서사를 특기할만한 부분을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김응하 서사의 집대성은 정조의 명으로 1799년에 편찬된 『중간충렬록』에서 이루어진다. 김응하와 관련한 역대의 기록들을 집대성하여 편찬한 『중간충렬록』은 왕명으로 편찬되었으며, 여기에는 정조의 賜祭文과 賜祭詩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앞서 광해군 대에 편찬된 초간 『충렬록』이 비록 훈련도감에서 편찬되었음에도 광해군의 글이나 시가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과 대비된다. 광해군과는 달리 정조는 적극적으로 대명의를 천명하였으며, 『尊周彙編』을 통해 春秋大義를 선양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한다. 『중간충렬록』 역시 이러한 정조의 일련의 시도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정조가 적극적으로 대명의를 고취한 것은 이를 자신의 왕권 강화의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광해군의 현실론과 정확히 대비되는 측면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조의 이념적 강화 정책이 현실에서도 그대로 통용되었는지는 의문이다. 정조의 춘추대의론이 문인들의 생각마저 지배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중간충렬록』의 발문을 쓴 성대중에게서 그 단면이 보인다.

김응하는 무신의 疏頭로서 仁穆大妃 유폐 사건에 참여하였으니, 만일 심하의 전투에서 죽지 않았더라면 계해정사 때의 참륙을 면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므로 사람의 훌륭한하고 훌륭하지 않음은 관 뚜껑을 덮고 나서야 정해지는 것이니, 이 때문에 군자는 의리에 맞게 죽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¹¹⁴⁾

성대중은 『청성잡기』 「성언」에서 林慶業과 함께 김응하를 논하고 있다. 성대중이 글을 쓴 요지가 비록 군자가 의리에 맞는 죽음을 택해야 한다는 것이기는 하나, 단순히 김응하를 현창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만은 아니다. 그동안 김응하에 대한 역사적 가정은 주로 그가 조선군을 이끌었다면 후금의 팽창을 억제시키고 명을 구원했을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그에 반해 성대중의 역사적 가정은 김응하가 살았다면 인조반정에 의해 죽임을 당했으리라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문인들이 보여준 태도와는 사뭇 다르기에 주목을 요한다.

성대중의 신랄하면서도 객관적인 논평은 영웅의 반열에 오른 김응하를 지상으로 끌어내려 역사적 논평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게다가 영웅을 두고 살았다면 반정에 의해 참륙되었을 것이라 보는 역사적 가정도 불온하다. 기실 김응하는 소북이었던 박승종의 사람이며, 박승종이 『충렬록』을 편찬하여 적극적으로 현창한 덕분에 유명해진 인물이다.¹¹⁵⁾ 문인들이 종종 명 신종의 요동백 추증에 대해 의문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데,¹¹⁶⁾ 비록 차마 입 밖에 내지는 않았지만 김응하 서사에서 보인 박태보의 의문 역시 비슷한 맥락에 닿아 있다. 성해응이 김응하의 모든 부분을 미화하지는 않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객관적 시각을 감지할 수 있다. 더구나 『중간충렬록』의 발문을 쓴 사람이 사적인 기록에서는 김응하를 논평의 대

114) 성대중, 『靑城雜記』 권3, 「醒言」, 金應河以武臣疏頭 參廢母論 使無深河之死 能免癸亥之戮哉 故土之臧否 蓋棺乃定 此君子所以貴得死也.

115) 『인조실록』의 기사 가운데에도 박승종이 김응하만 정포하여 그 외의 열사들이 잊힌 것을 안타까워한다는 주장이 보인다. 『인조실록』 권2, 인조 1년 8월 경오, “其時朴承宗 獨褒應河 公議甚惜”

116) 『중간충렬록』에는 명 신종이 지었다는 <證遼東伯詔>가 실려 있다. 後記에 의하면, 조문의 문체가 명에서 사용하던 것이 아니라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간충렬록』에서는 이러한 의혹을 불식시키고자 조문을 제일 앞에 배치하였다고 한다.

상으로 놓았다는 것을 보면, 대명의리를 주장하던 문인들의 속마음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본고는 박희현의 <김장군전>의 문예미를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한편, <김장군전> 이후의 김응하 서사가 보여준 시대별 변천의 면모를 일별하고자 하였다. 박희현의 <김장군전>에 의해 개인의 비장한 죽음은 숭고한 죽음으로 미화되었다. 이러한 미적 전이 과정을 통해 김응하의 죽음이 무의미한 전쟁에 동원되어 희생된 비극이 아니라, ‘중화 질서의 수호’라는 이념적 가치를 위한 숭고한 희생으로 가치 평가될 수 있었다. 이러한 <김장군전>의 미학은, 당대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도구로 기능하여 광해군의 정치 외교적 입장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작용하였고, 아울러 김응하를 尊明排淸의 상징으로 만들어 주었다. 또한 김응하 서사는 여러 문인들에 의해 창작되면서 역사적 변천을 겪게 되는데, 김응하라는 한 인물에 대해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던 문인들이 한 인물에 대해 제각각 나름의 서사를 펼친 것은, 그 예를 찾기 힘들다. 비록 김응하 서사가 숭고화를 통한 강한 이념성을 보여 준다고 해서, 해당 서사의 문학사적 의의가 평가절하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김응하 서사의 변화 양상을 통해 인물전의 사적 변이 양상이나 ‘전의 소설화 과정’¹¹⁷⁾ 등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은 향후 다른 인물전들과 함께 더 종합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와 더불어 김응하 서사에 대한 문인들의 관심과는 달리, 김응하 서사가 한글화된 것은 찾을 수 없었다. 김응하와 대비되는 강홍립의 경우 李健의 기록¹¹⁸⁾을 통해서 한글로 기록된 <강로전>이 세간에 떠돌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종종 김응하와 비슷하게 언급되는 임경업의 경우도 한글로 된 <임경업전>이 창작되었다. 당대인들의 관심으로 보나, 다수 문인들의 기록으로 보나

117) 박희병(1991), 앞의 논문, 51~81쪽 참고.

118) 『葵窓遺稿』 권12, <강로전>.

충분히 이야기거리가 되는 인물임에도 김응하 서사가 소설화된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점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아마도 이것은 조선 후기로 갈수록 강화된 이념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지만, 확신할 수 없다. 이 점은 향후 사실과 허구, 인물전과 소설과의 관계를 고찰하는 연구를 지속함으로써 풀어야 할 과제로 보인다.

참고문헌

1. 자료

『忠烈錄』(규장각 소장본. 청구기호: 奎 12020)
 『忠烈錄』(규장각 소장본. 청구기호: 古貴 923.55 G417)
 『重刊忠烈錄』(규장각 소장본. 청구기호: 奎 1320, 奎 1695)
 『宋史』
 『夷堅志』
 『光海君日記』
 『仁祖實錄』
 『正祖實錄』
 『金將軍遺事』
 『花浦先生遺稿』
 『海東名臣錄』
 『定齋集』
 『柳下集』
 『密菴集』
 『海東名將錄』
 『青城雜記』
 『葵窓遺稿』

2. 단행본

계승범, 『조선시대 해외파병과 한중관계』, 푸른역사, 2009.
 마크C. 엘리엇, 이훈·김선민 옮김, 『민주주의 청제국』, 푸른역사, 2009.
 오항녕, 『조선의 힘』, 역사비평사, 2010.
 한명기,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역사비평사, 1999.

3. 논문

김창현, 「‘미적 범주’에 대하여」, 『陶南學報』 17, 陶南學會, 1998, 17~44쪽.
 박희병, 「조선후기 「전」의 소설적 성향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359쪽, 1991.

- 박희병, 「17세기 초의 崇明排胡論과 부정적 소설주인공의 등장」, 『한국고전소설과 서사문학』 上, 집문당, 1998, 35~68쪽.
- 이승수, 「深河 戰役과 金將軍傳」, 『한국문학연구』 26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3, 23~51쪽.
- 임완혁, 「明·淸 交替期 朝鮮의 對應과 『忠烈錄』의 의미」, 『漢文學報』 제12집, 우 리한문학회, 2005, 179~214쪽.
- 임유경, 「〈金景瑞傳〉연구-문제적 인물의 영웅화 과정-」, 『동방한문학』 45, 동방 한문학회, 2010, 265~290쪽.
- 조동일, 「美的範疇」, 『한국사상대계』 1,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73, 467~527쪽.
- 한명기, 「16, 17세기 淸交替와 한반도」, 『淸史研究』 22, 명청사학회, 2004, 37~64쪽.

The embellishment of the death and the aesthetic of the sublime

Kim, Yu-jin

The *Simha-jeontu*(深河戰鬪), the battle of *Simha*(深河) was a momentous incident that affected the relations of East Asian countries in the 17th century. The *Joseon* Dynasty dispatched 15,000 troops into the battle, but 9,000 people were killed in action. Besides the *Simha-jeontu*(深河戰鬪) was branded as a gruesome defeat, the only hero in the battlefield was Kim Eung-ha by his heroic death. Park Hui-hyeon, one of the literary men in the *Joseon* Dynasty created the *Kimjanggung-jeon*(金將軍傳).

The *Kimjanggung-jeon*(金將軍傳), the narrative for Kim Eung-ha's life is a text of the memory and testimony owned by the dispatched. Through the creative writing, Park Hui-hyeon figured Kim Eung-ha as a self-cultured and fighting man. Consequently Kim Eung-ha became a sublime hero by virtue of this work. An important point the *Kimjanggung-jeon*(金將軍傳) has is Sino-centralism that symbolized by aesthetic ideals. The death of Kim Eung-ha, a tragic event in itself takes on the sublime beauty through a process of aesthetic transition.

It should be discussed with regard to the aesthetic category of the *Kimjanggung-jeon*(金將軍傳). Kim Eung-ha's behavior was sublimated into an aesthetic ideology of Sino-centralism by the *Kimjanggung-jeon*(金將軍傳). It is an appropriate point of view that the Ming Dynasty's request for additional troops could have been refused softly by the sublimed story of Kim Eung-ha. But the purpose of the *Kimjanggung-jeon*(金將軍傳) had been also to refuse the request of the *Ming* Dynasty might have something unreasonable. Paying due regard to such factors like that the generals who had surrendered have been condemned extremely more than the blame for the *Later Jin* Dynasty(後金), the target of the *Kimjanggung-jeon*(金將軍傳) might have been some insiders in the *Joseon* Dynasty. In this estimation, the target might be representatively the

15th king of the *Joseon* Dynasty, Gwanghaegun(光海君). The *Chungyeol-rok* (『忠烈錄』)- the records of devoted and faithful lists the *Kimjanggun-jeon*(金將軍傳) could be classified one of the publication that holds each other in check between the power of throne(王權) and the power of retainers(臣權).

The subsequent writers had been affected by the text of the *Kimjanggun-jeon*(金將軍傳). The *Chungyeol-rok*(『忠烈錄』) had been published four times. And manifold literary men had left some kinds of the narrative for Kim Eung-ha. The 22th king of the Joseon Dynasty, Jungjo(正祖) who had published the *Reprint of Chungyeol-rok*(『重刊忠烈錄』) built an ideologic sublime of Sino-centralism. The series of the narratives for Kim Eung-ha shows three phases. That is ‘the pursuit of political subjectivity’, ‘the pursuit of facts’ and ‘the placation and consolidation of ideology’. Representing the loyalty to the *Ming* Dynasty, the narrative for Kim Eung-ha had been suffered the ups and downs of the noble ideals.

Keyword : Kim Eung-ha, *Kimjanggun-jeon*(金將軍傳), *Sarhu*, aesthetic category, Sino-Centralism

접수일자: 2012. 3. 31
 심사기간: 2012. 3. 31~2012. 5. 20
 게재결정: 2012. 5. 20